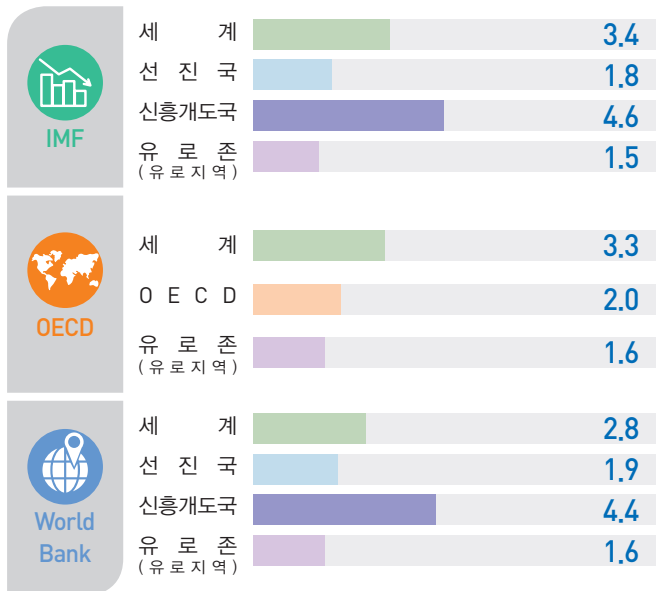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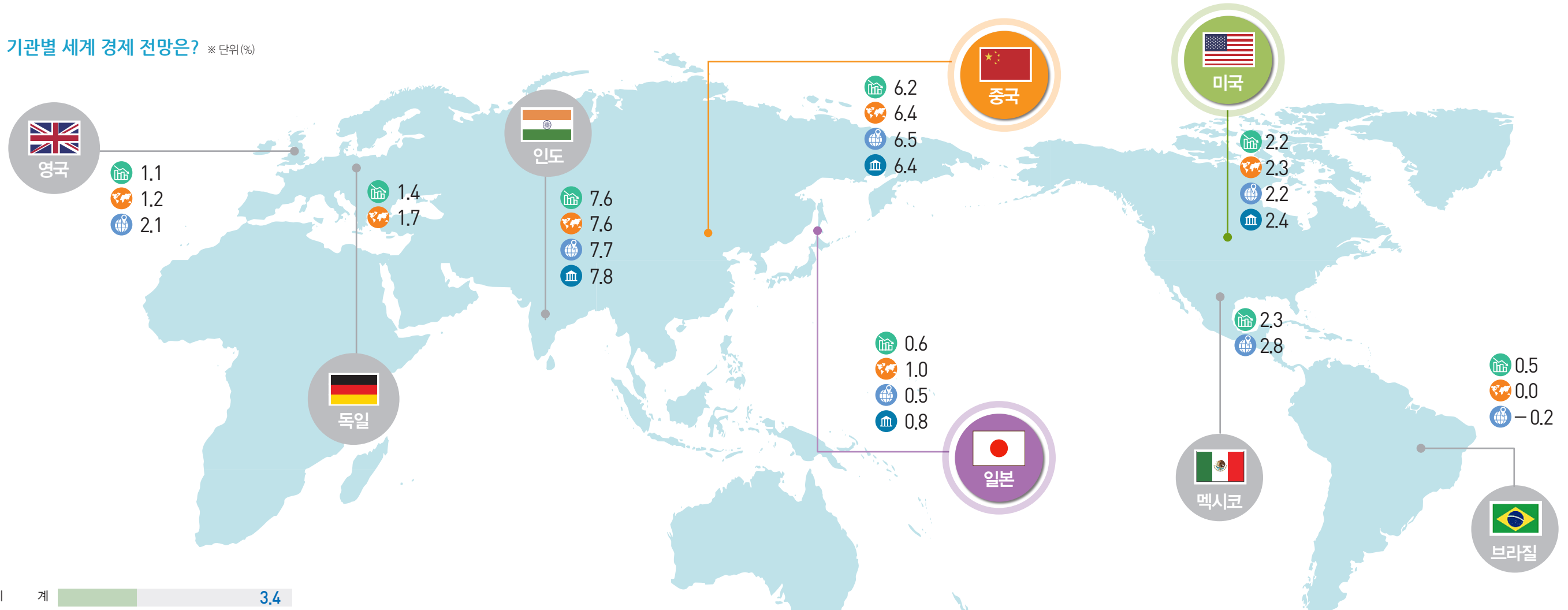




# '17년, 세계 경제 전망! 회복 or 장기 침체, 어떻게 진행될까?

IMF OECD WorldBank 아시아개발은행

★ 2017년 기관별 세계 경제 전망은? ※ 단위(%)



★ 2017년 기관별 세계 경제 전망은?



세계

- 중국 수입 위축
- 보호무역주의 심화
- 기업투자 부진
- 저금리 기조로 금융시장 리스크 확대

- 주요국 재정확대
- 원자재 가격안정 등으로 개선 전망

유로지역

- 기업투자 부진
- 내수부진
- 브렉시트 등으로 교역 감소
- 난민 이슈

- 소비회복
- 노동시장 여건 개선

미국

- 기업투자 부진
- 달러 강세
- 신흥국 수요 약화
- 인구 고령화

- 임금상승 및 고용시장 개선
- 재정부양책

중국

- 경제구조전환 (내수·소비중심 재편)
- 비금융원 기업부채 증가
- 부동산 과열

- 외환보유액 충분
- 공공지출 확대 등 재정여력 충분

일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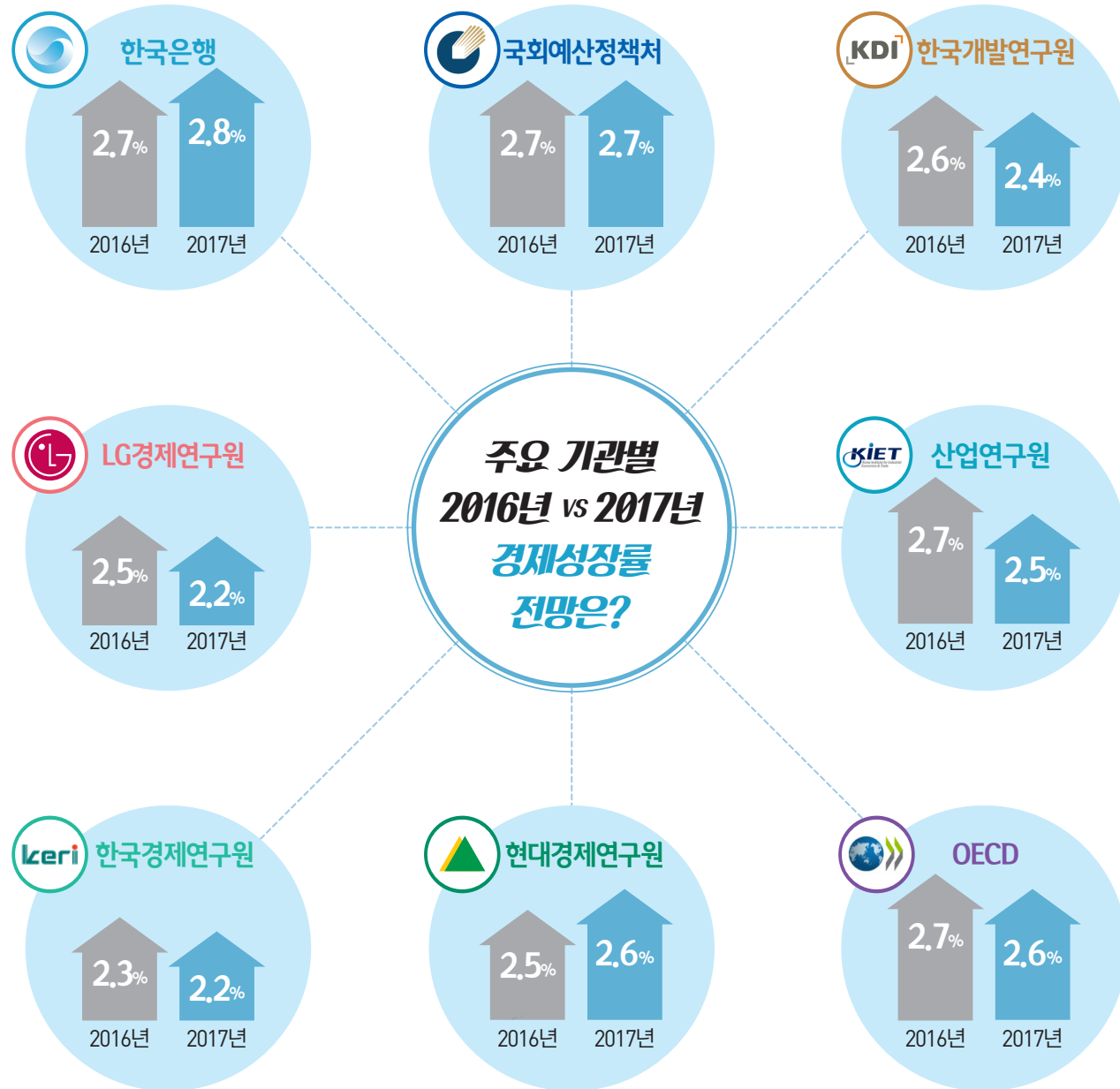
- 엔화 강세
- 글로벌 경기 둔화
- 인구 고령화

- 소비세 인상연기
- 재정부양책
- 기업이익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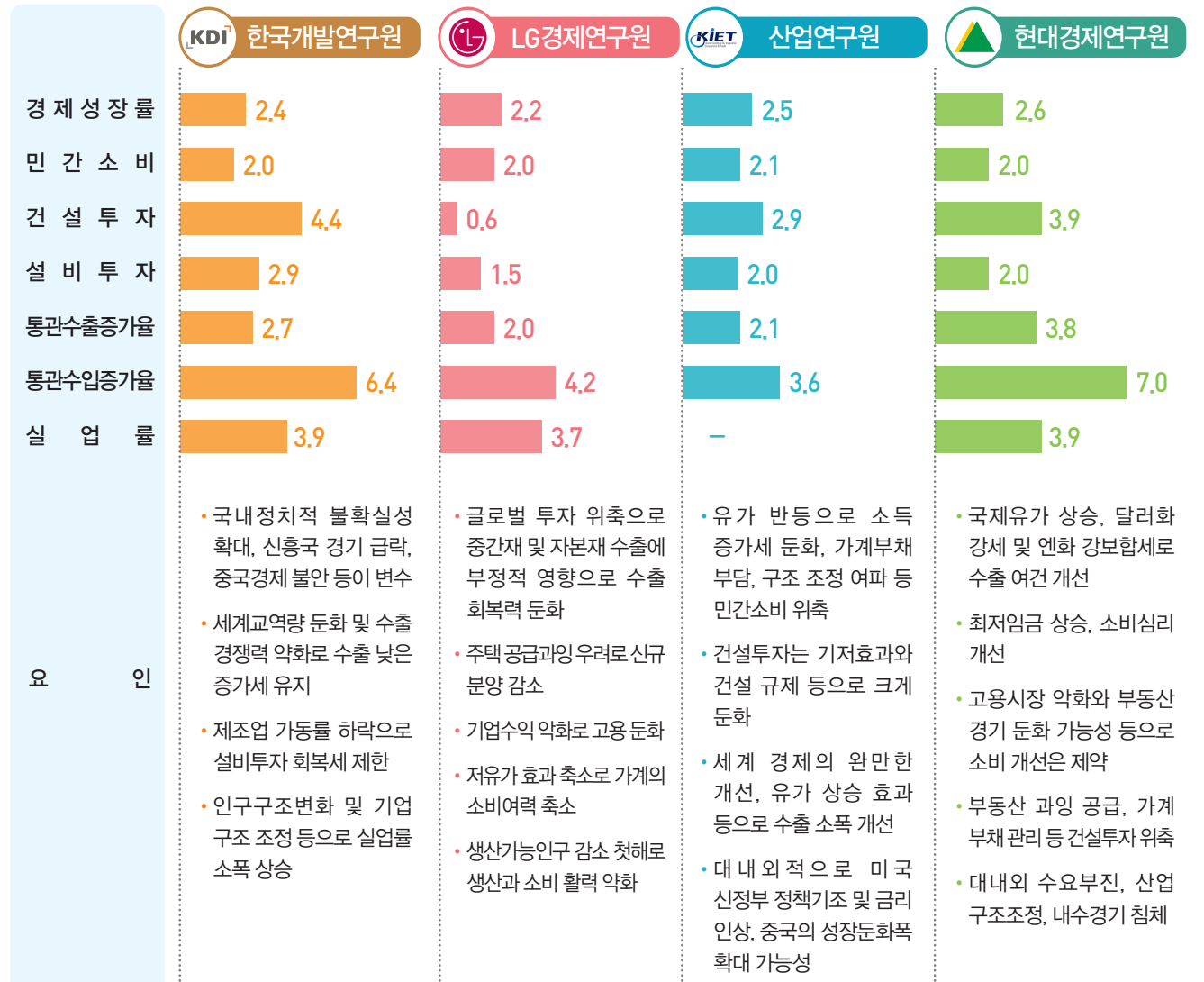
주 1) 세계은행: 시장환율 기준(세계는 구매력평가 기준), IMF 등은 구매력평가 기준 환율 사용 2) IMF('16.10월), OECD('16.11월), WorldBank('16.6월), 아시아개발은행('16.9월) 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인용 / 한국경제연구원 "기관별 세계 경제전망" 자료 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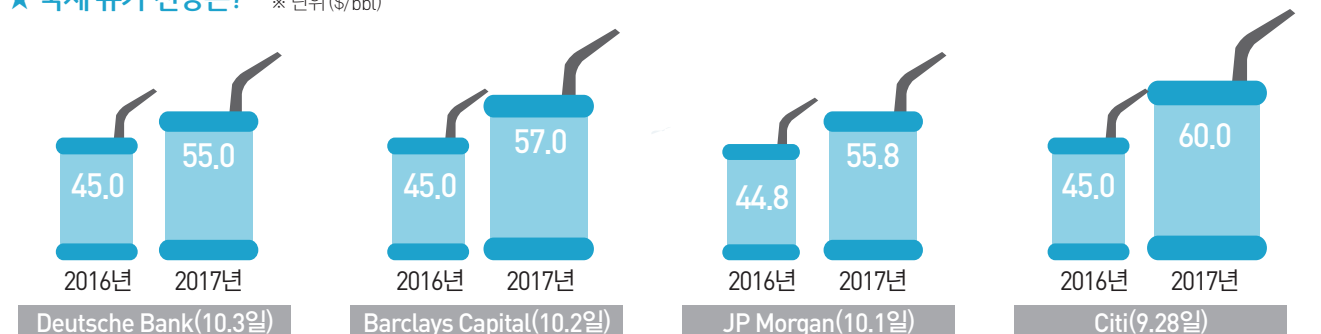
## 2017년 우리나라 경제전망, 기관별 비교하기



### ★ 각 기관의 2017년 경제 부문별 전망과 요인은? ※ 단위 (%)



### ★ 국제 유가 전망은? ※ 단위 (\$/bb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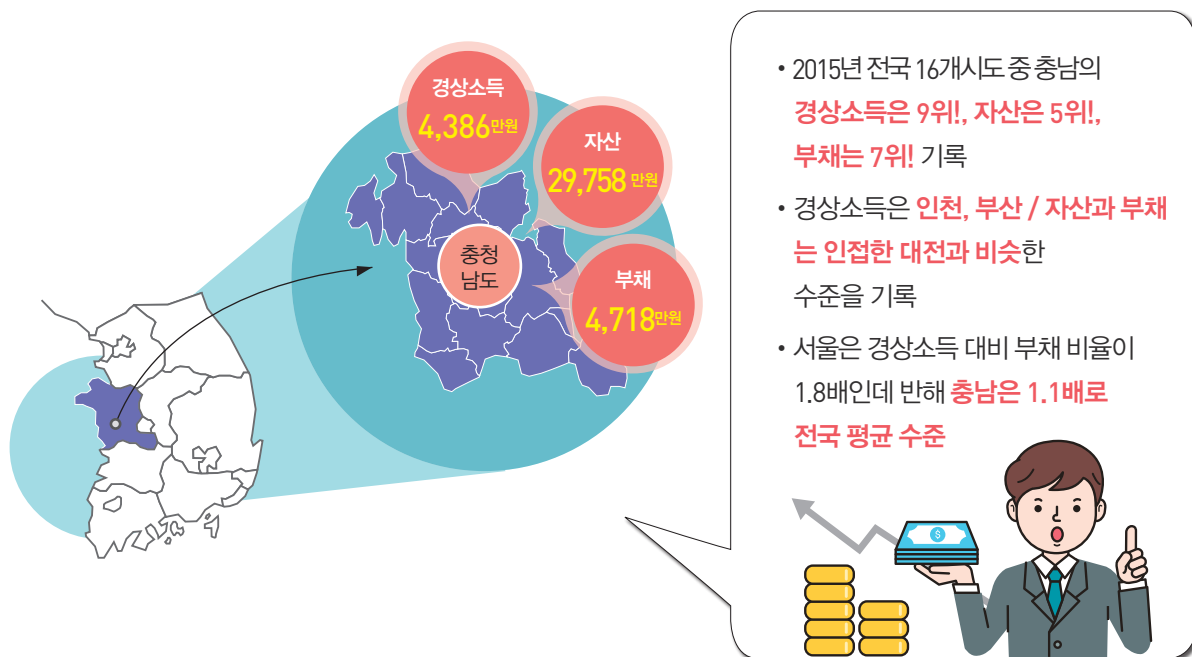
주 1) 한국은행('10.10월), KDI('16.12월), 국회예산정책처('16.9월), LG경제연구원('16.10월), 산업연구원('16.11월), 한국경제연구원('16.9월), 현대경제연구원('16.9월) 발표자료, 2) 각 기관별 전망 시기가 상이한 관계로 전망의 주요 전제 조건들이 상이할 수 있음. ※ 자료 : 각 기관별 2017년 경제전망 보고서 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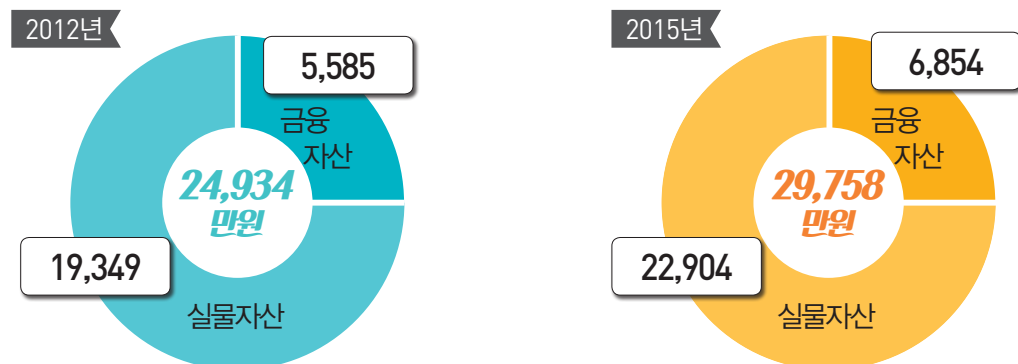
## 충남 사람들의 자산과 부채는 어떻게 변화하였는가?

- ✓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패널)을 이용한 충남지역의 소득, 자산, 부채를 알아보고자 함
- ✓ 충남지역 표본은 4.5%, 평균 가구원수는 2.9명, 가구주 연령은 54.4세로 조사됨(2015년기준)

### 충남의 경상소득, 자산, 부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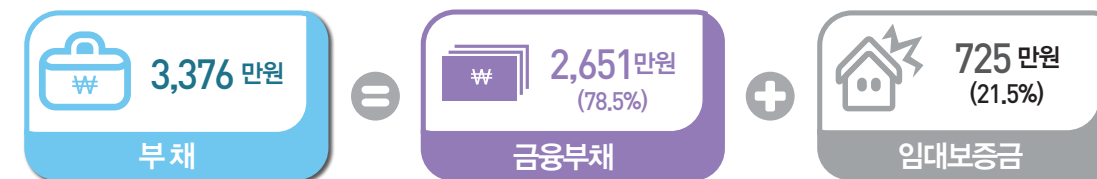
### 충남지역 자산과 부채의 변동성



- 자산은 '12년 대비 19.3% 증가하였으며 실물자산은 18.4%, 금융자산은 22.7% 증가
- 동기간 경상소득 증가 21.3%에 못 미치는 수준

2012년

( ) 안 수치는 총부채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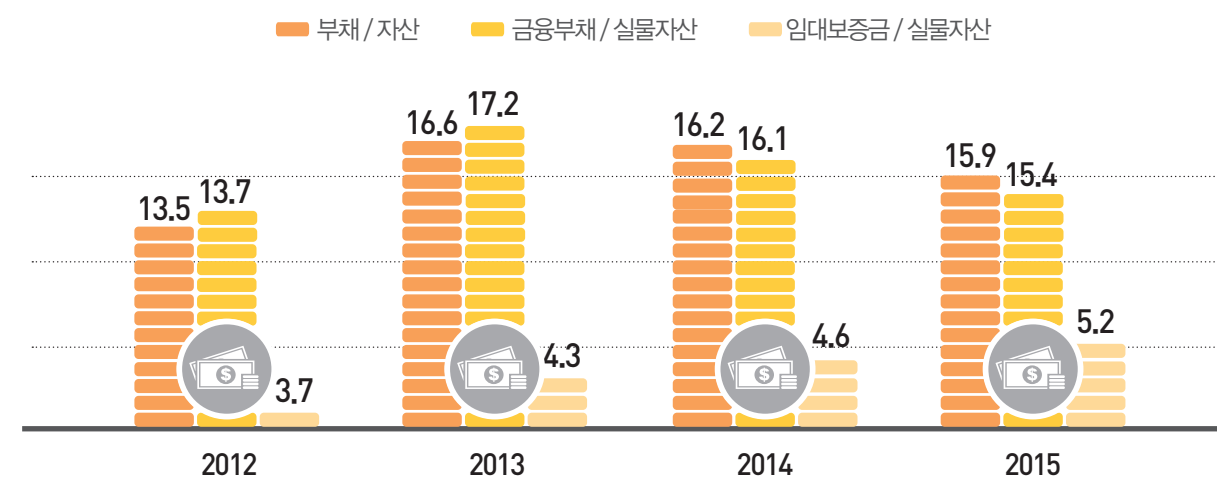


2015년



- 부채는 동기간 39.8% 증가하며 전국 평균 13.4%를 웃도는 수치
- 대부분의 부채는 금융부채로 신용과 가계대출이 포함되어 있으며 33.3% 증가하였고, 최근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채가 63.2%로 부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낮지만 높은 증가세를 보임

### 최근 4년간 충남지역의 자산대비 부채 비율의 변화



- 자산과 부채를 비교하면, 자산대비 부채 비율은 2013년 최고치를 기록하고 소폭 감소하는 모습을 보임
- 실물자산 대비 세부 부채별로 비교하면, 금융부채 비율은 전체 자산대비 부채 비율과 동일한 양상을 보였으나 실물자산 대비 임대보증금은 2012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
- 2015년 충남의 임대보증금 부채의 실물자산 대비 임대보증금 비율은 2015년 전국 16개 시도 중 서울(11.8%)보다는 낮은 수치이지만 비수도권 평균(4.3%)보다는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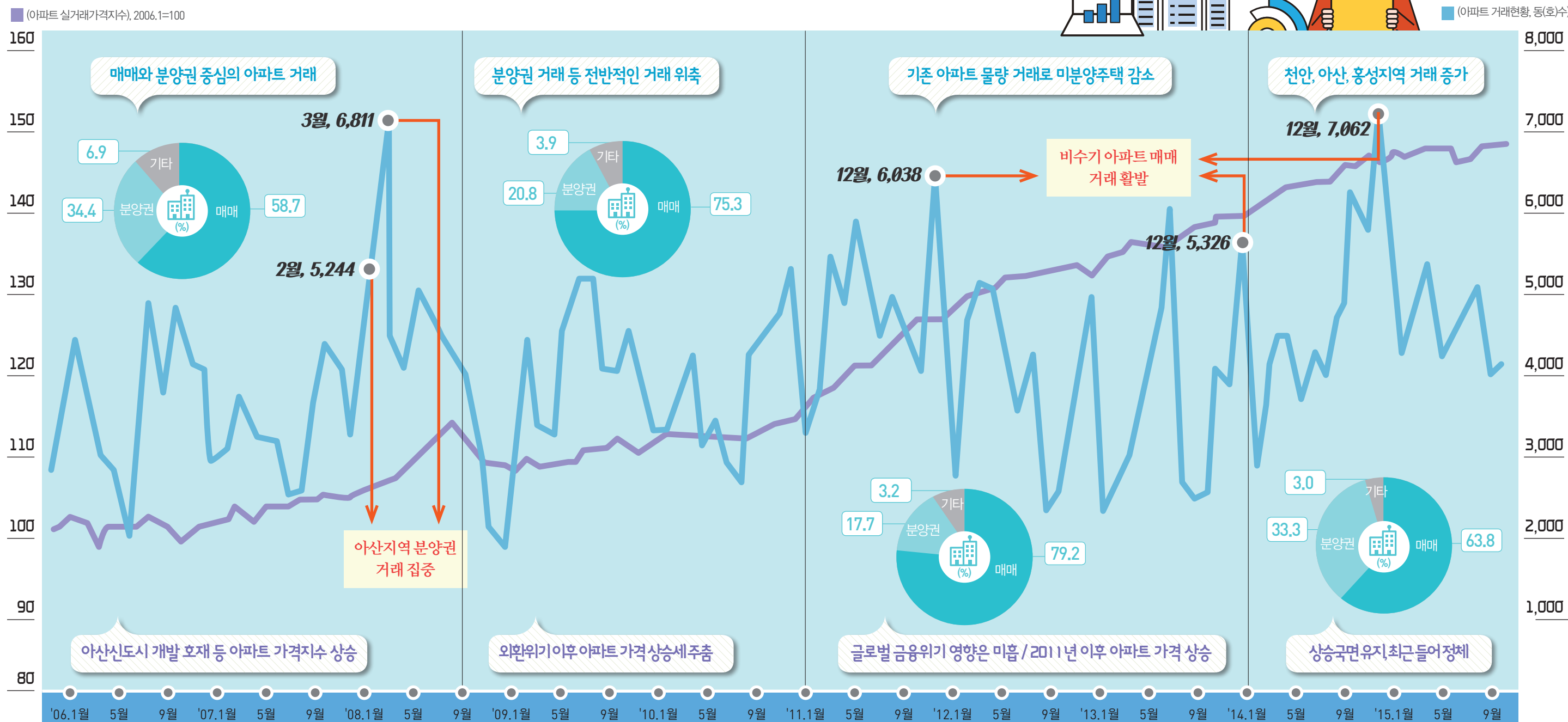


## 아파트 실거래가격지수와 거래현황으로 본 충남지역 부동산 시장 10년 !! 체험하기

자료 : 한국감정원, 부동산통계, 아파트 실거래 가격지수/아파트 거래현황

- 아산과 천안지역의 개발 호재로 2008년 3분기까지 거래 실절 및 가격 상승이 이어졌으나 외환 위기 이후 실거래 가격은 정체되는 모습이 나타남
- 외환위기 및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아파트 거래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아파트 거래 비수기인 12월에 매매가 활발하게 진행되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는 10월과 11월 가을철 분양권 거래 이후 매매거래가 이루어짐에 따라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임

- 또한 최근에는 천안아산지역의 개발과 도청이전으로 인한 홍성지역의 아파트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모습



충남경제  
인포그래픽  
49

## 증가하는 외국인 거주자와 아직 제자리 걸음인 인권의식, 충남의 현황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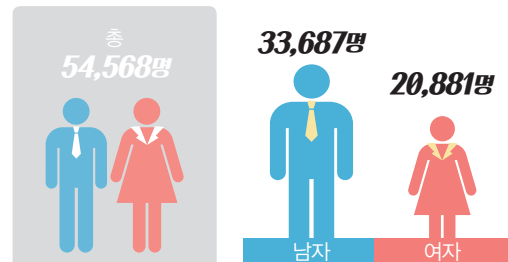
✓ 충남의 체류외국인수는 2012년부터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외국인 노동자, 결혼이민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인 존중도의 응답은 30%에도 못미치는 수준

### 충남지역 체류 외국인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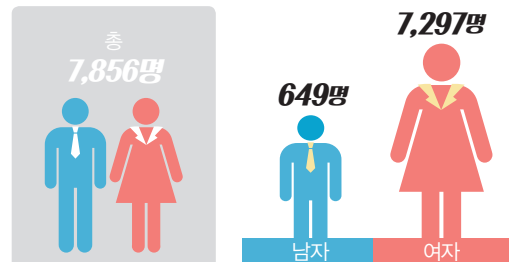
자료: kosis(통계청), 체류 외국인 통계(2014년)

- 충남의 체류 외국인수는 전년대비 9.3% 증가한 54,568명으로 남성의 비율이 여성보다 높음
- 취업활동을 제외하면 결혼이민자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이 중 92% 이상이 여성이며 남성은 소수에 불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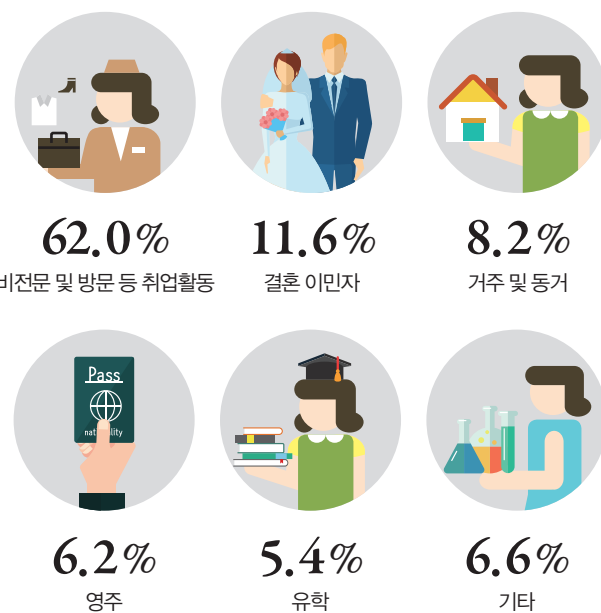
#### 체류외국인수



#### 결혼이민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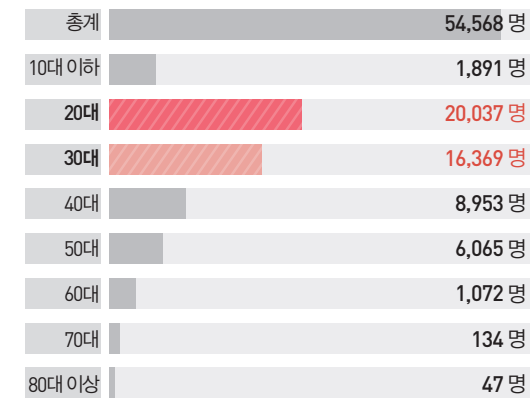
### 체류자격별 현황



### 체류외국인의 연령별 지역별 분포

- 체류외국인의 주 체류 목적이 취업활동이나 결혼 이민자임을 감안할 때 20~30대의 젊은층이 대다수를 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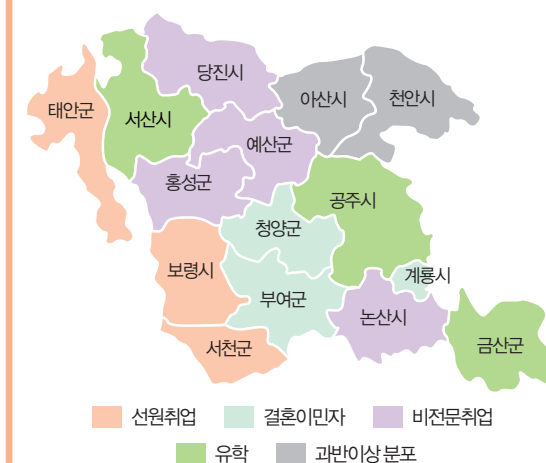
#### 연령별 현황



자료: kosis(통계청) 행정구역(시군구)별/성별/연령별 등록 외국인수

- 천안, 아산 지역에 전체 체류외국인의 54.8%가 거주
- 바다가 인접한 지역은 **선원취업**, 농촌지역은 **결혼 이민자**, 산업활동이 활발한 지역은 **취업활동**이 주목적
- 유학의 경우, 상대적으로 대학교가 밀집된 아산과 천안지역이 우세하나 공주, 서산, 금산 지역 역시, 높은 비중을 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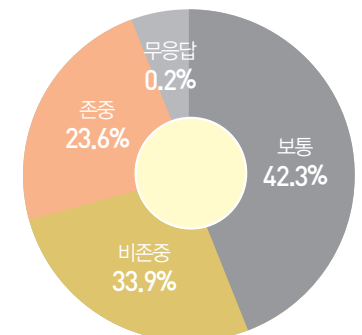
#### 지역별 분포 특성



### 사회조사로 알아본 존중도 척도

- 외국인에 대한 사회인식은, 결혼귀화자·이민자 보다 외국인 노동자의 존중도가 낮음
- 외국인의 증가추세와는 달리 외국인 존중에 대한 인식수준은 전반적으로 낮은 편이며, 지속적인 교육, 개선 노력으로 점진적 인식개선이 필요

#### 외국인노동자 - 존중도 평균점수 4.83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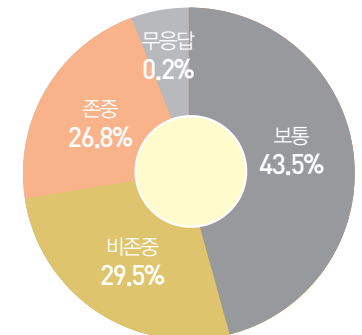
비존중(0점)

4.83점



존중(10점)

#### 결혼귀화자, 이민자 - 존중도 평균점수 5점



비존중(0점)

5점



존중(10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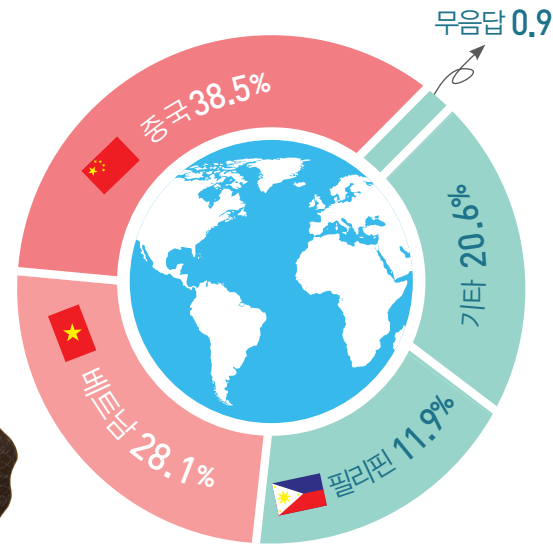
자료: kosis(통계청), 충청남도, 충청남도사회조사(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의식)



## 우리 주변의 다문화 가정, 얼마나 알고 있나요?

### 다문화 가정 국적별 비율

- 충남의 다문화 가정의 국적은 중국과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지역이 대부분을 차지



시군구별 다문화가정 분포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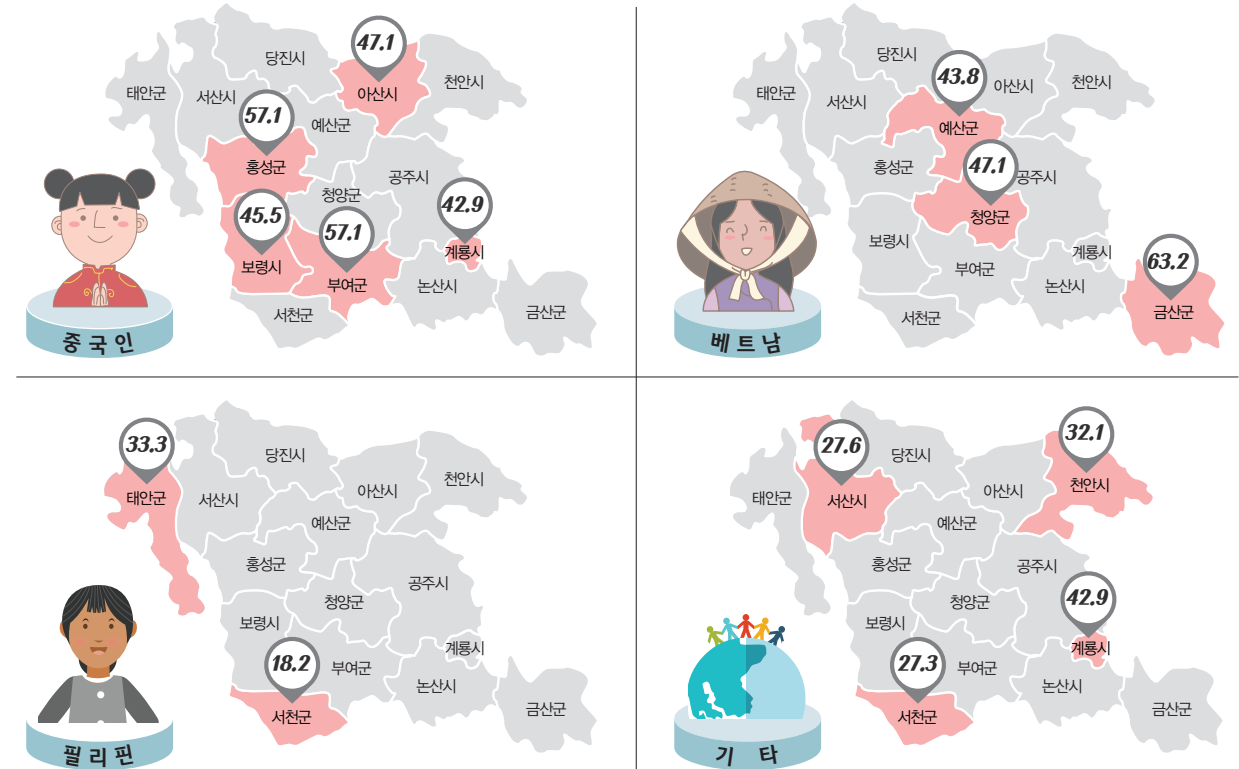


0~4% : 계룡, 태안  
5~8% : 천안, 공주, 아산, 당진, 서천, 홍성  
9% 이상 : 보령, 서산, 논산, 금산

- 대체로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으나 보령, 서산, 논산, 금산은 분포 비율이 9%대로 상대적으로 다문화 가정의 분포가 높음

### 시군구별 다문화가정 국적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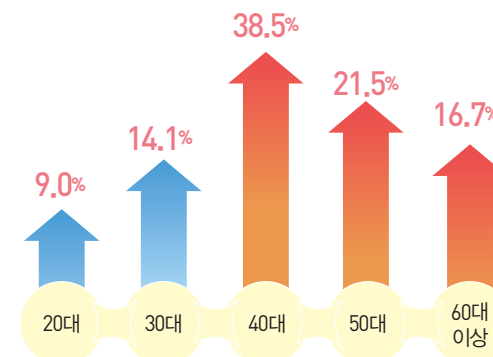
- 국적별 비교를 보면 아산, 홍성, 보령, 부여, 계룡은 '중국', 예산, 청양, 금산은 '베트남', 태안, 서천은 '필리핀'이 우세
- 서산, 천안, 서천의 경우 국적이 비교적 다양하게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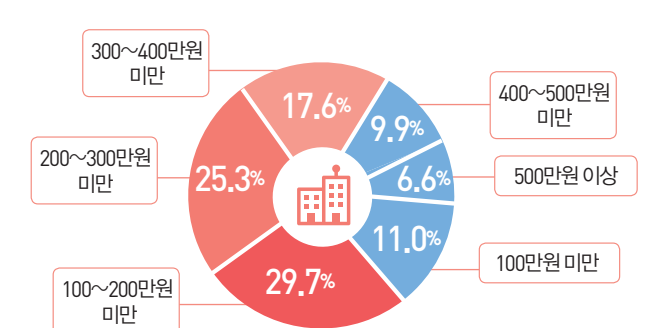
### 다문화가정의 소득과 연령별 분포

- 충남지역 다문화가정의 소득 분포는 100~200만원 미만 가장 높고, 200~300만원 미만, 300~400만원 미만
- 연령별 분포를 보면 젊은 층 보다는 40~50대 이상의 중장년층의 비율이 높고, 연령에 비해 소득수준이 다소 낮게 나타남

#### 연령별 분포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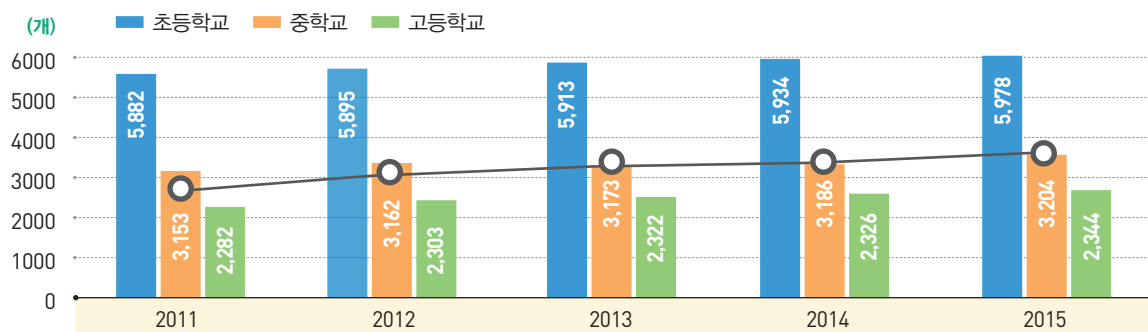
#### 가구 소득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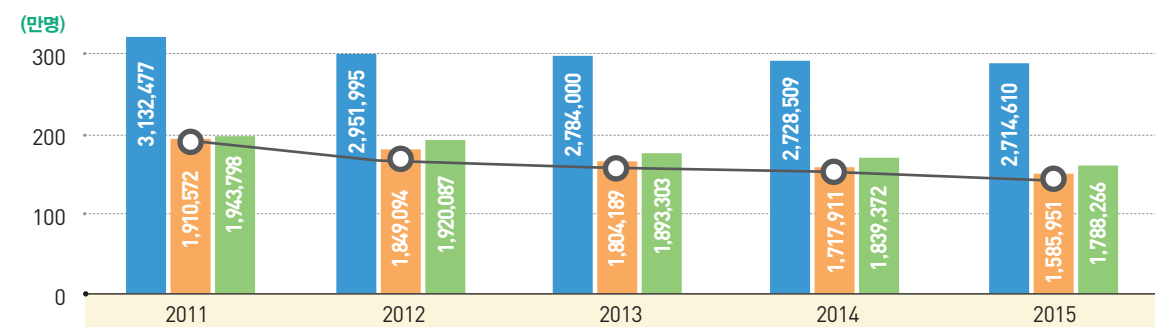


# 주요 부문별 교육현황, 교육통계로 알아보자!

## 1 학교 수 증가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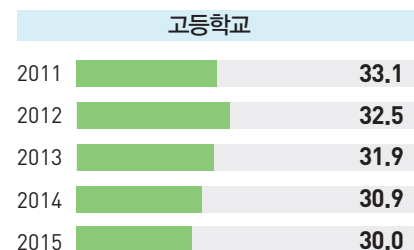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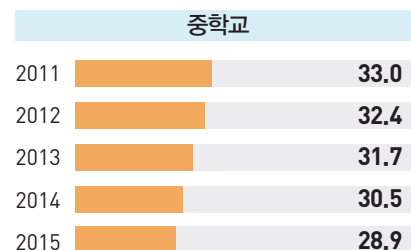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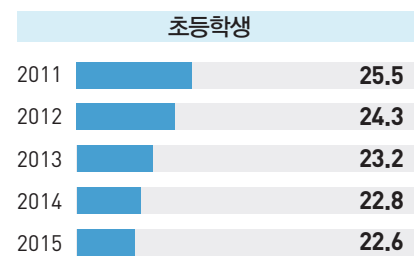
## 2 학생 수 감소추세



## 3 학급당 학생 수 감소추세

※ 단위: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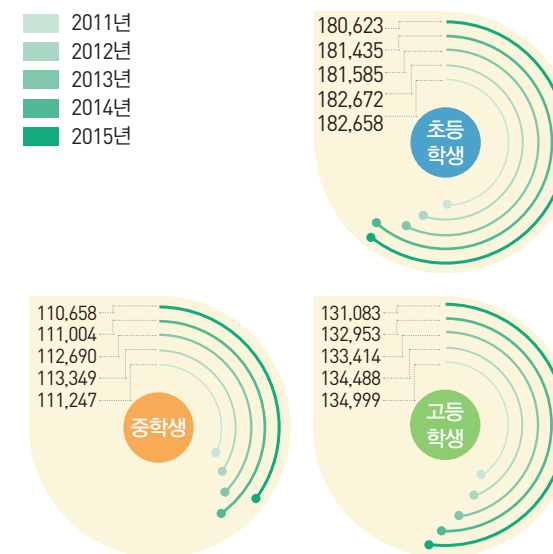
✓ 낮은 출산율로 학생 수는 감소하는데 학교 수는 점차 증가하여 학급당 학생 수가 낮아지는 바, 전반적인 교육 환경의 질이 향상됨



## 4 교원 수

※ 단위: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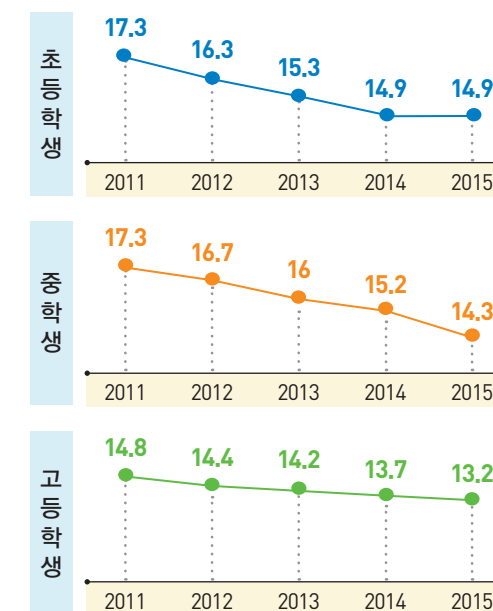
✓ 2015년도의 경우 이례적으로 초등학교, 중학교 교원이 소폭 감소하였으나, 전반적으로 교원 수는 증가하는 추세로, 교육여건 및 교육의 질이 향상됨



## 5 교원 1인당 학생 수 감소추세

※ 단위: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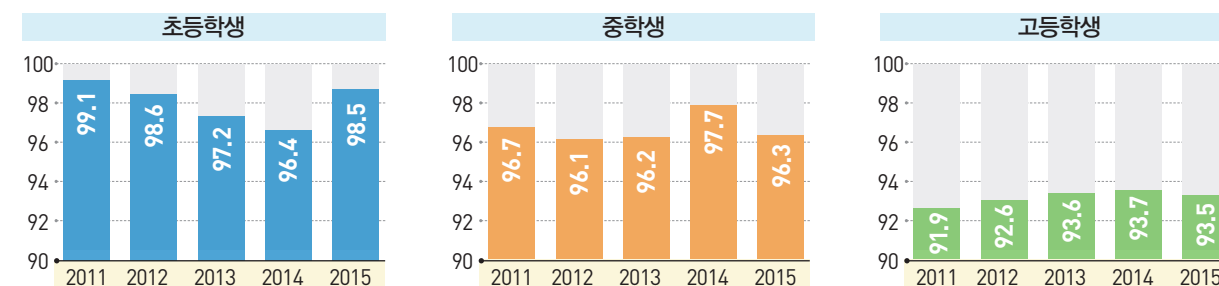
✓ 학급당 학생수와 교원 1인당 학생수는 감소하는 추세로 교육 환경이 개선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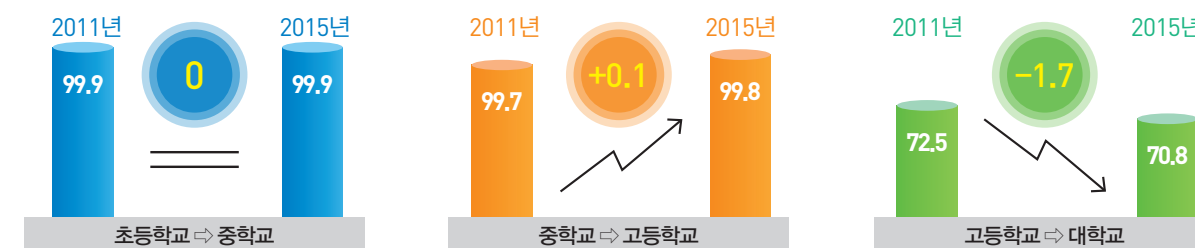
## 6 취학을 / 진학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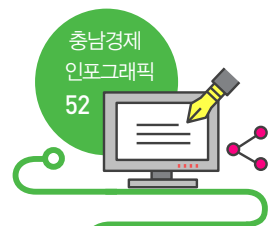
※ 단위:%

- ✓ 취학을 - 어떤 등급의 교육기관에 취학할 자격이 있는 적령아동수에 대하여 실제로 취학하고 있는 학생 수의 비율
- ✓ 산정방법 - 해당연령층의 재적 학생수 / 적령아동수 X 100
- ✓ 초등학교의 경우 90% 후반대, 중학교의 경우 90% 중후반대, 고등학교의 경우 90% 초중반대를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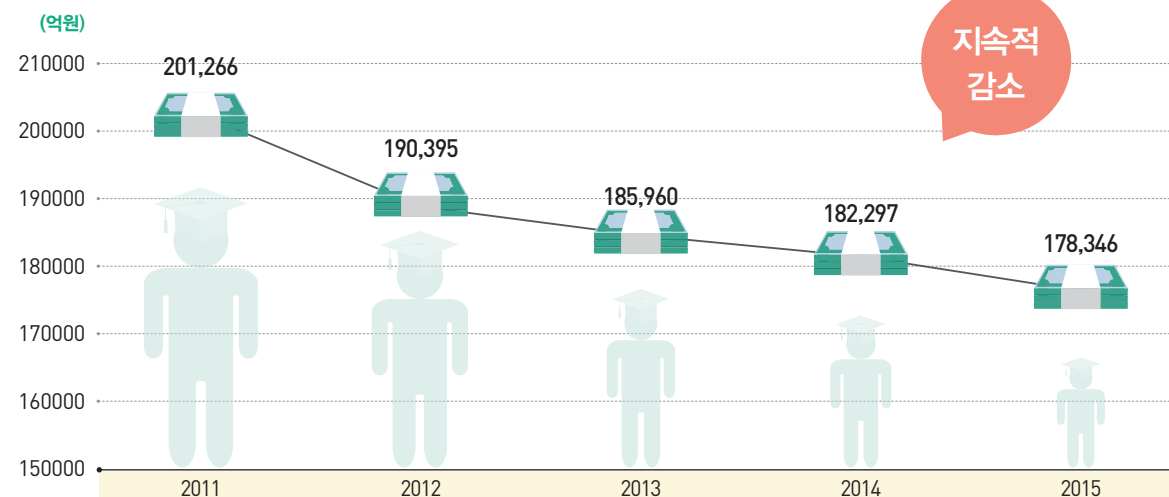
- ✓ 진학을 - 특정 등급의 학교를 졸업한 학생이 상급학교에 입학하는 비율
- ✓ 산정방법 - 상급학교 입학자 / 하급학교 졸업자수 X 100
- ✓ 중학교, 고등학교의 진학률은 매우 높은 수준을 유지하나, 대학교의 진학률은 점차 감소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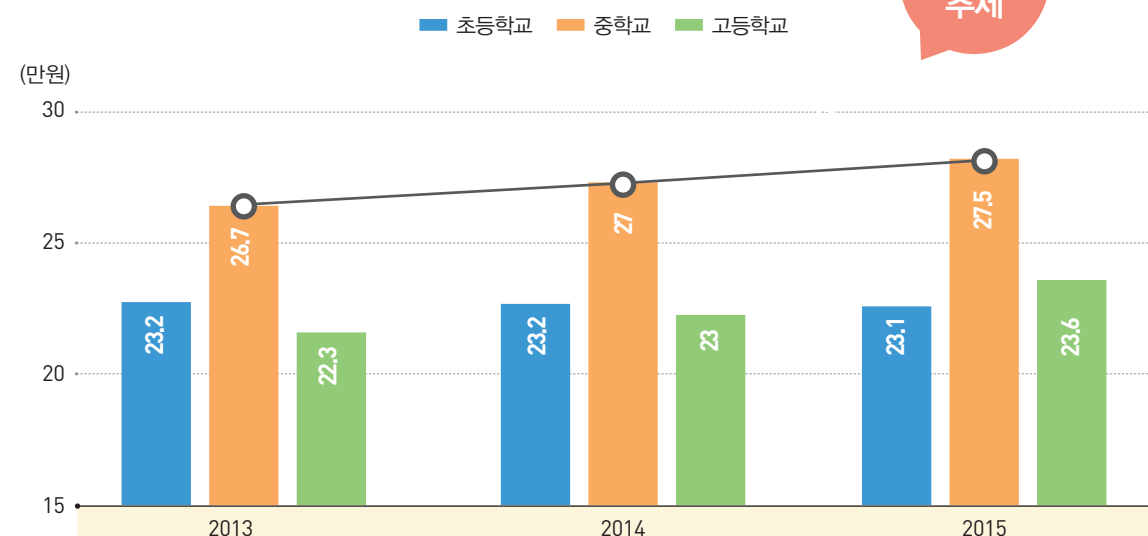
# 사교육비, 얼마나 지출하고 있을까요?

## 1 연도별 사교육비 총액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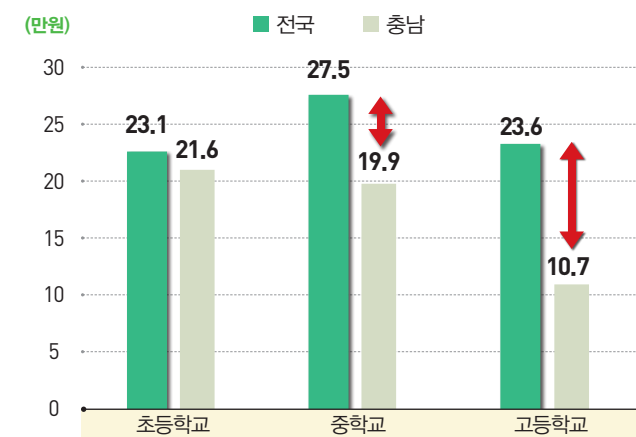


## 2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 ✓ 학교급별 사교육비 금액은 중학교가 가장 많으며, 초등학교, 고등학교 순
- ✓ 사교육비 총액이 감소하는데도 월평균 사교육비가 증가하는 이유는?  
⇒ 소수의 자녀에게 교육이 집중되는 현상 때문



## 3 충남의 월평균 사교육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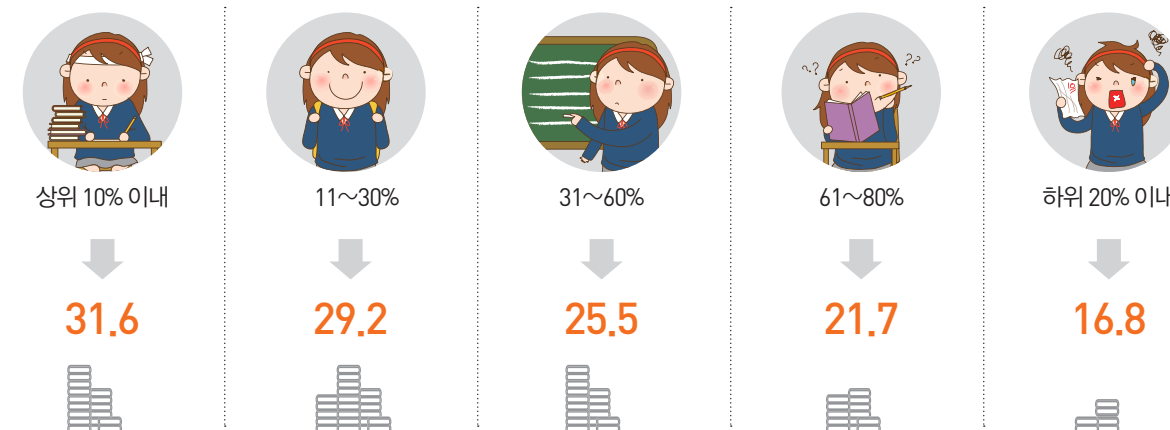


- ✓ 충남의 월평균 사교육비는 전국 대비 전체적으로 낮음
- ✓ 초등학교의 경우 전국과의 격차가 미미하나, 중학교 이후부터 급격히 커짐

## 4 학생 성적별 사교육비

※ 단위: 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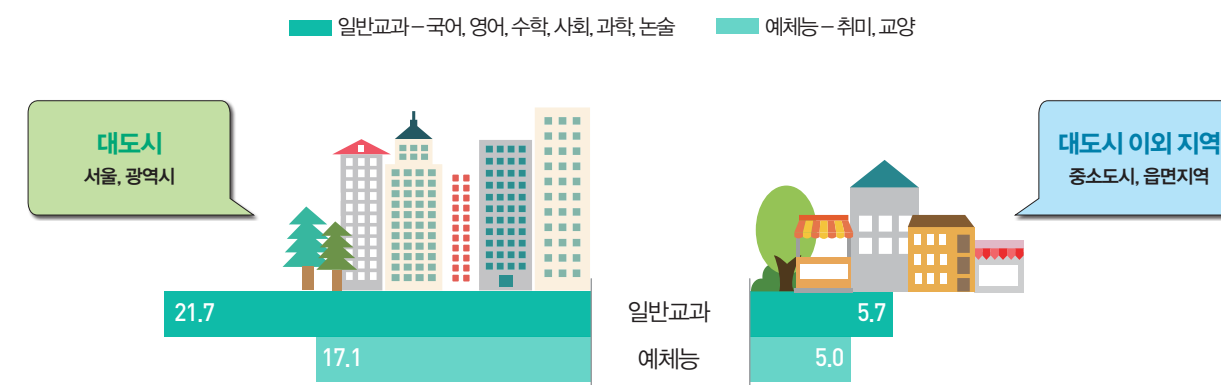
- ✓ 사교육비 지출은 학생의 성적수준과 비례하는 경향을 보임



## 5 과목별 월평균 사교육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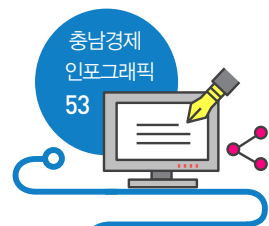
※ 단위: 만원

- ✓ 대도시일수록 사교육비가 많고, 대도시와 이외지역의 사교육비 격차는 일반교과에서 뚜렷한 양상을 보임



자료: 교육청(교육통계), 통계청(사교육비 총액), 통계청(월평균 사교육비), 통계청(학교급별 / 과목별 사교육비)





# 충남 사람들의 직업선택 & 근로여건 만족도 어디까지 알고 있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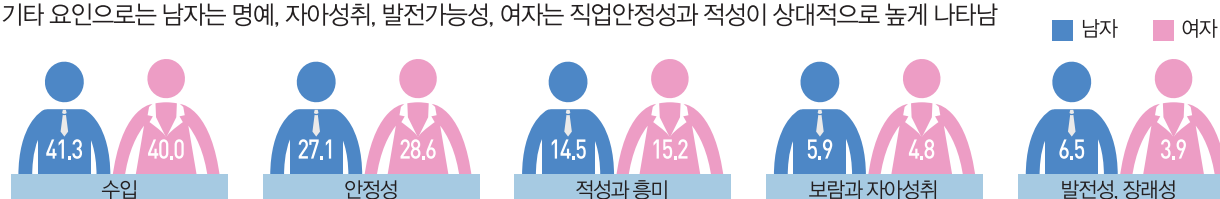
- ✓ 충남 사람들의 직업선택의 제1요건은 수입! 하지만 실제 만족도는 임금, 복리후생 등 직업선택에 있어서 고려되는 주요 요인보다 인간관계, 근무환경 등에서 높게 나타남
- ✓ 또한 충남 사람들은 평균 2.3회 이직을 경험, 여자(2.32회)가 남자(2.25)보다 좀 더 빈번하게 이직하지만 비슷한 수준
- ✓ 근로여건의 전반적 만족도는 하락 추세, 직장이동은 감소, 평균재직기간은 6.8년, 10년 이상 장기 근속은 남자가 여자보다 우세

## 충남 사람들이 직업 선택에 가장 중점을 두는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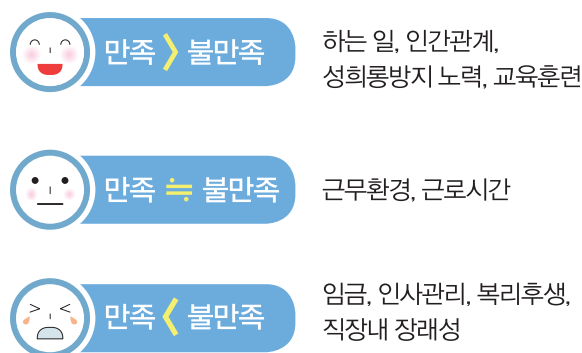
※ 단위: %

- 전반적으로는 금전적 요인(수입)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
- 기타 요인으로는 남자는 명예, 자아성취, 발전가능성, 여자는 직업안정성과 적성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자료 - 통계청, 사회조사, 직업선택요인(13세 이상 인구, 2015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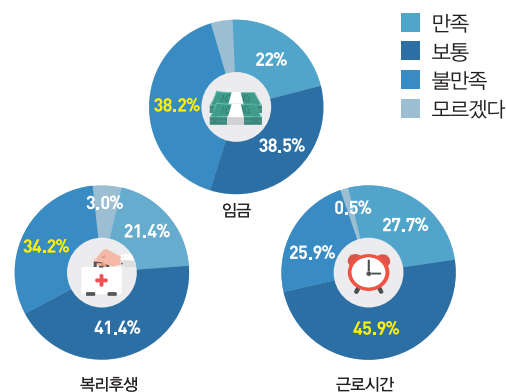


## 충남의 근로여건 만족도! 한눈에 알아보기



## 양적측면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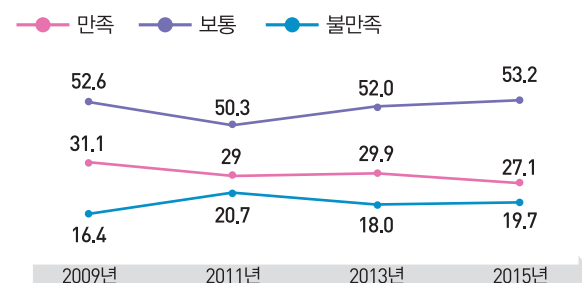
- 대표적인 근로여건의 양적측면을 나타내는 임금과 복리후생은 다소 불만족스럽다는 응답이 우세한 반면, 근로시간에 대한 응답은 평이한 수준



## 근로여건 전반적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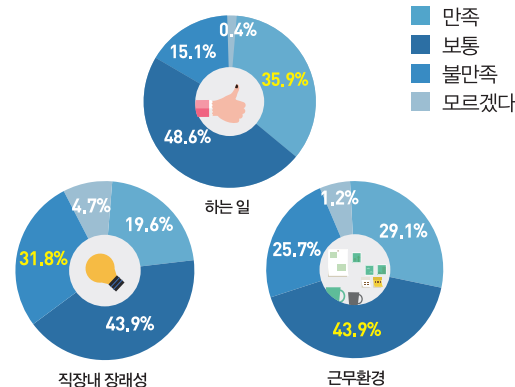
※ 단위: %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근로여건의 전반적 만족도는 하락 추세
- 최근 들어 상대적으로 불만족스럽다고 응답한 비율이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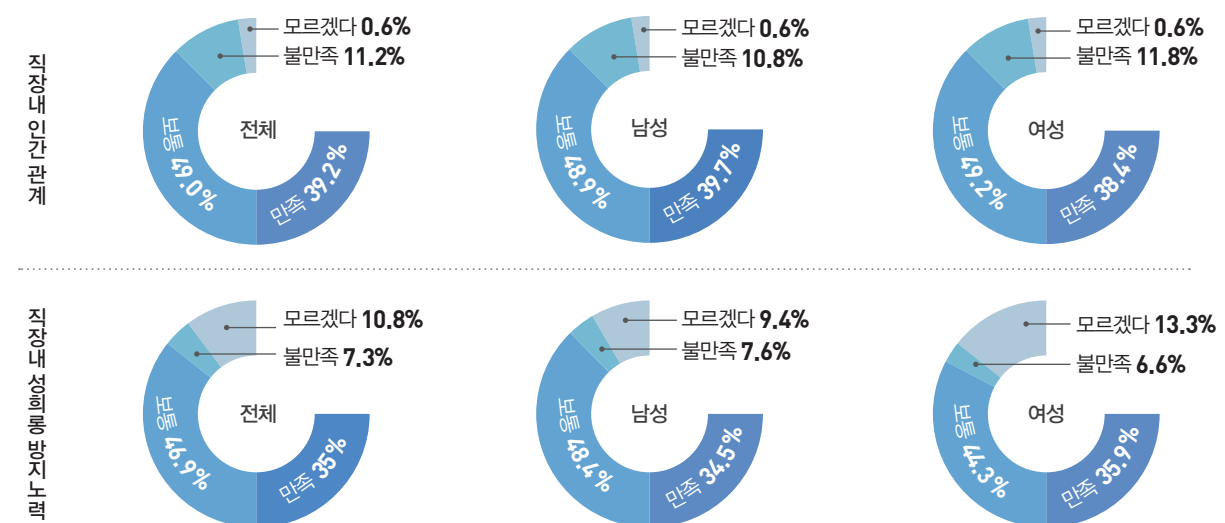
## 질적측면 만족도

- 하는 일에 대한 응답은 대체로 만족하고 있지만 현 직장에서의 근속으로 인한 장래성에 대한 응답은 다소 부정적임



## 기타 만족도

- 여자의 사회진출이 활발해지면서 직장내 성희롱 등에 대한 노력도 근로여건 만족도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데 만족한다는 응답이 35%로 높게 나타났지만 다른 지표보다 '모르겠다' 라고 응답한 비중이 10.8%로 다소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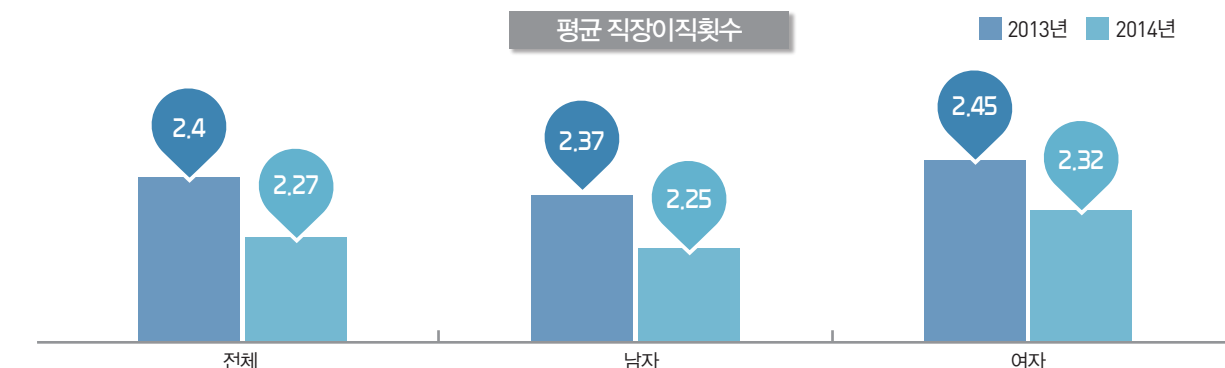


※ 자료 - 통계청, 사회조사, 근로여건 만족도(13세 이상 인구, 2015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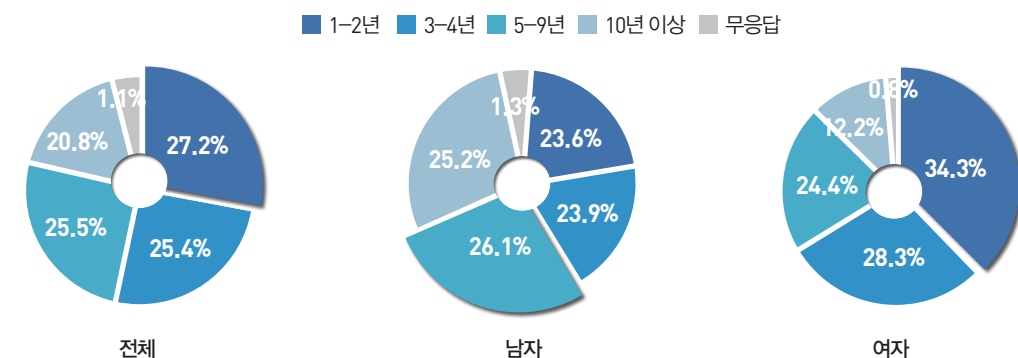
## 충남 사람들은 얼마나 자주 이직을 할까? 또 얼마나 오랫동안 근무할까?

※ 단위(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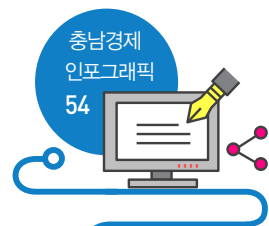
- 직장이동은 보통 1~2회 정도 경험하고 3회 이상 빈번한 이동도 10명 중 3.5명이 경험함



- 평균재직기간은 남자는 6.8년, 여자는 4.5년이며, 10년 이상 장기 근속으로 갈수록 성별 차이가 현저하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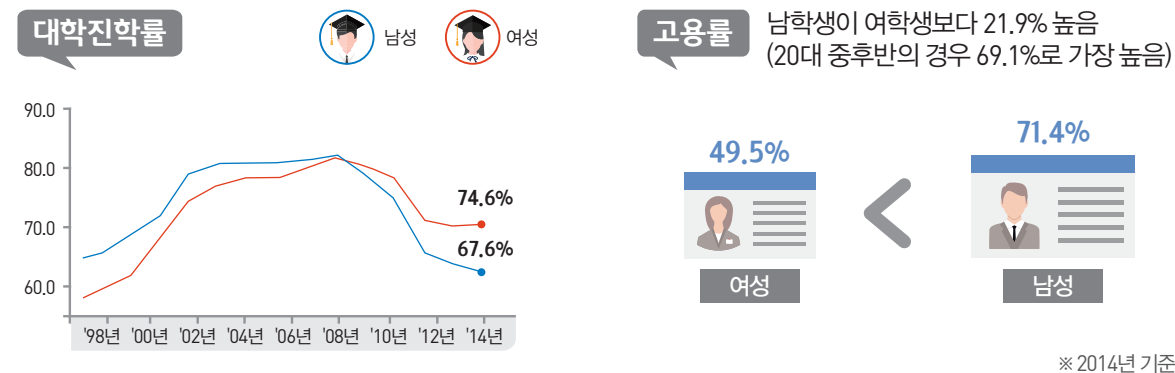
※ 자료 - 통계청, 충청남도 사회조사, 직장이직 횟수 및 평균 재직기간



# 사회통계로 살펴본 국내 경력단절 및 여성고용 현황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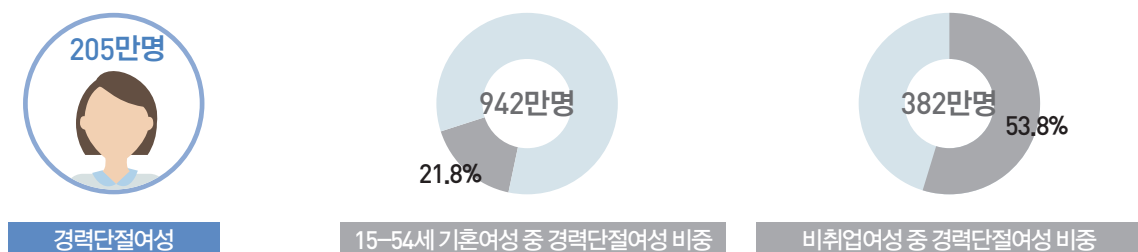
## 여성의 대학진학률과 고용률

여자의 대학진학률은 2009년 이후 남자를 역전하여 최근 그 격차가 7%p를 넘어서고 있지만 고용률은 남자보다 현저하게 낮은 수준을 보임



## 경력단절여성 현황(201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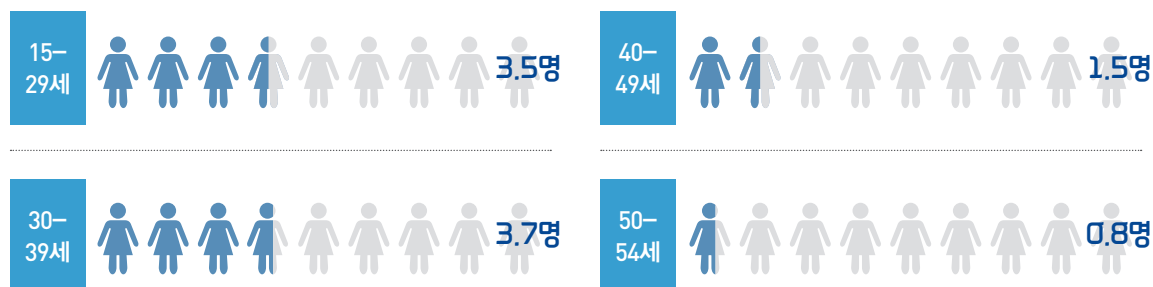
전체 15~54세 기혼여성 5명중 1명은 경력단절, 비취업자여성 2명 중 1명이 이에 해당



최근에는 일한 경험이 없는 여성보다는 초기에는 노동시장에 진입하여 일을 하지만 결혼 및 출산 또는 육아 등의 이유로 노동시장에서 퇴장하여 경력단절이 일어나는 현상이 심화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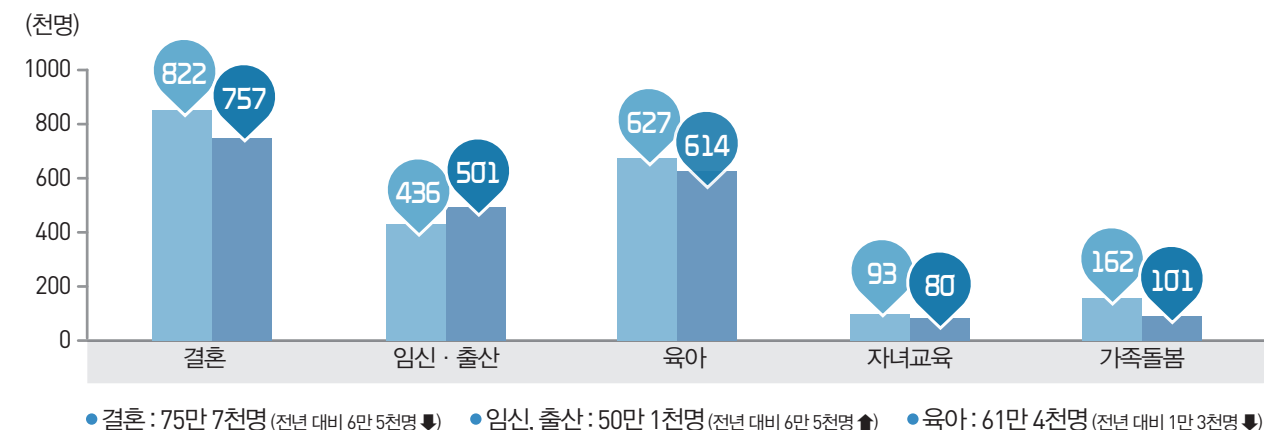
## 연령별 경력단절 현황

※ 10명 중 몇 명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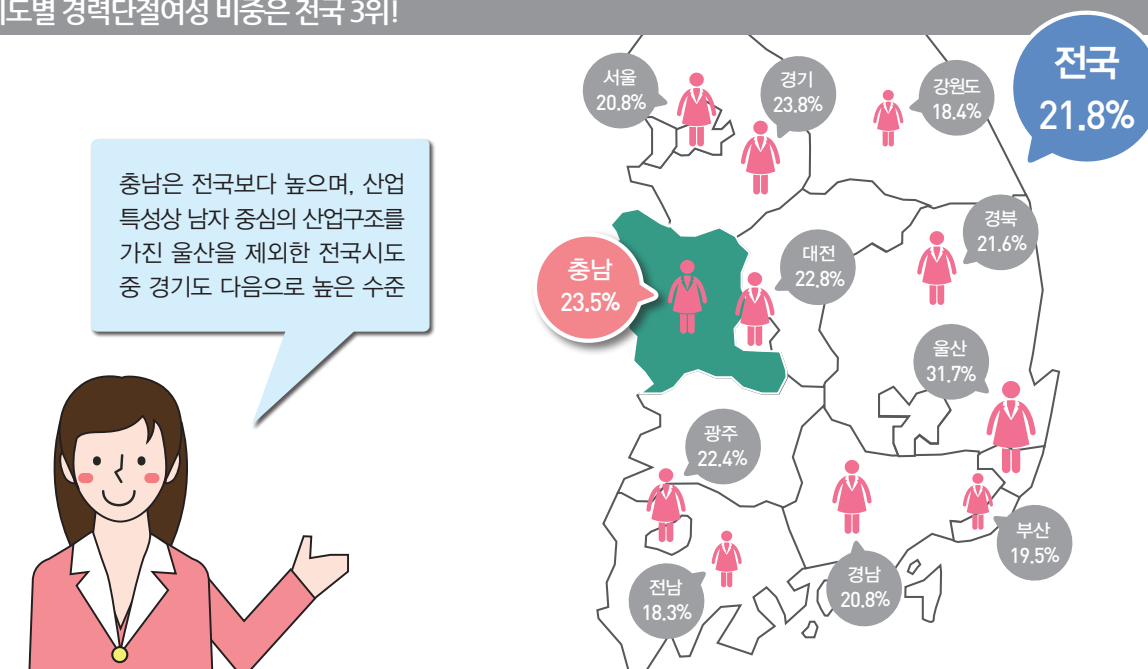


## 경력단절 사유 현황

2014. 4. 2015.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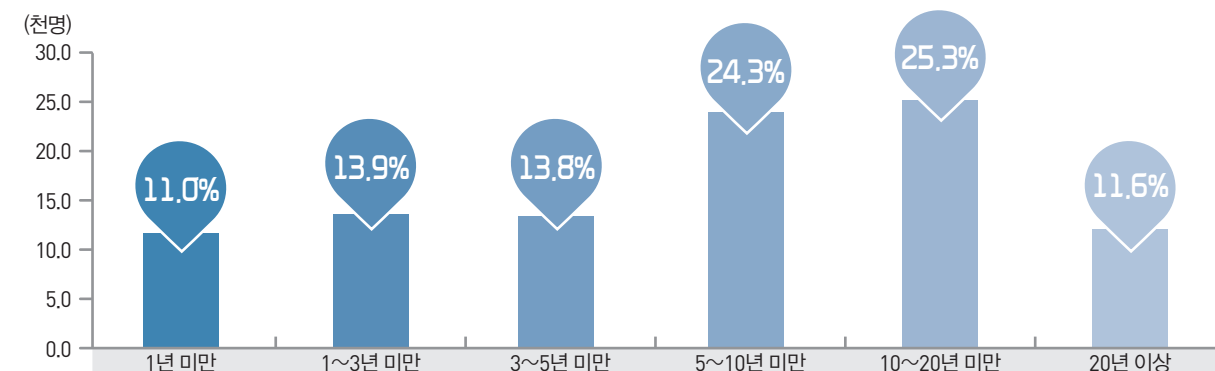


## 시도별 경력단절여성 비중은 전국 3위!



## 경력단절기간 현황

우리나라 여성은 10~20년 미만의 경력단절기간이 가장 많았으며 이는 주로 20~30대 결혼·출산 등으로 단기간 일을 그만둔 이후 노동시장에 재진입하기 보다는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기간이 다소 길어지는 경향이 나타남





## 충남지역 인재확보역량과 정책과제

인재가 찾아오고 머무는 지역으로 변모하려면

### ‘수도권만 바라보는 지역인재’

바야흐로 국경과 지역을 넘어 인재전쟁·두뇌전쟁의 시대에 접어들었다.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인재의 확보 여부가 국가뿐만 아니라 지역과 기업의 미래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로 부상했기 때문이다. 더구나 국가나 지역의 경제구조가 기술 집약형·지식경제로의 전환과 인구고령화 심화에 따라 고급인력을 둘러싼 치열한 경쟁은 가속화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수도권으로 떠나는 지역인재들의 행렬은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매년 비수도권 대졸자의 약 30%가 수도권으로 빠져나간다. 특히 충남은 66%의 대졸자가 수도권으로 유출되어 전국 최고 수준에 이른다. 인재들의 수도권 빨대현상으로 충남을 포함한 많은 지방에서는 고급인력 부족과 일자리 부족이 동시에 발생하는 인력수급 불일치 현상(구인·구직의 미스매치)에 직면해 있다. 지방의 미래가 밝지 않은 이유다. 왜 지역인재들은 수도권만 바라보는 걸까?

### ‘충남, 고(高)유인역량·저(低)양성역량의 역외인재 의존형’

지역이 인재를 확보하는 경로는 크게 두 갈래로 나누어진다. 하나는 다른 지역 인재를 자석과 같이 빨아들이는 유인환경을 구비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역내에서 교육 및 능력개발을 통해 인재를 양성하는 환경을 갖추는 것이다.

충남의 인재확보 종합역량(유인+양성)은 전국 평균을 조금 웃돌아 16개 광역시도 중 5위를 차지했다. 결코 나쁜 성적표는 아니다. 하지만 인재의 유인역량과 양성역량 간 불균형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역외인재 유인역량은 서울, 경기도에 이어 전국 3위를 차지한 반면, 역내인재 양성역량은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9위에 머물렀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충남의 인재확보역량 유형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역외인재 의존형’으로 분류됐다. 충남은 지역인재의 상당수가 타 지역으로 떠나지만 이보다 더 많은 역외인재를 일자리 제공을 통해 유입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경제성장이 뒷받침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그렇다고 충남이 언제까지고 지역성장을 지속한다고 단언할 수는 없다. 만약 충남경제를 견인하는 대표산업이 경기침체에 직면했다고 가정하면 과연 역외인재를 지금처럼 유입할 수 있을까?

### ‘충남이 인재를 유인·양성하려면’

본 연구의 결과, 관용성이 넘쳐흐르고 기술수준이 높은 지역이 고학력자·창의인재·R&D인재·지식기반산업인재 등의 고급인력을 효과적으로 유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고려하여 충남이 관용성 확충 방안으로 여성경제활동참가율 제고를 위한 ‘경력단절여성 경제활동촉진지역’을 지정 및 운영하고, 향후 충남의 산업발전전략과 부합하는 외국인 유입을 위해 ‘외국인 전문인력 특구 신설’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R&D역량 강화를 통한 기술수준 향상을 위해 R&D인력에게 부합하는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유치와 기업체의 R&D기능을 역내에 유치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이 시급한 과제이다.

또한 인재들은 활동적이며 적극적으로 참가하기를 즐기고, 이들 활동이 한정된 구역에서 이루어지길 기대하므로 직장과 거주지, 배움과 놀이가 복합된 환경조성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인재들이 선호하는 직·주·학·유 일체형의 혁신지구 조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충남과 같은 역외인재 의존형은 역내인재의 효율적인 양성을 통해 인재 비교우위형으로 이동 가능하다. 충남 지역경제의 장기적 발전을 위해 인재의 수급상황을 사전에 감지, 대응할 수 있는 우수인재 조기경보시스템(EWS: Early Warning System) 구축을 통한 전문인력의 위기관리 구축도 검토 대상이다.

키워드는 날개가 있어도 퇴화해 날지 못한다. 굳이 날지 않아도 먹이를 충분히 제공해주는 서식지의 환경이 그렇게 만들었다. 충남도 일자리를 찾아오는 역외인재들에게 안주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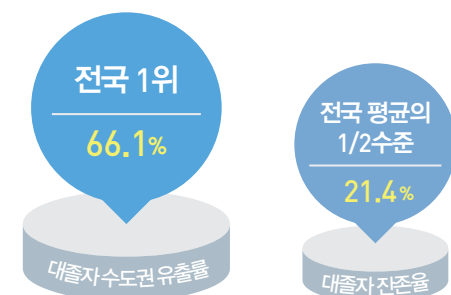
저자\_산업연구원 허문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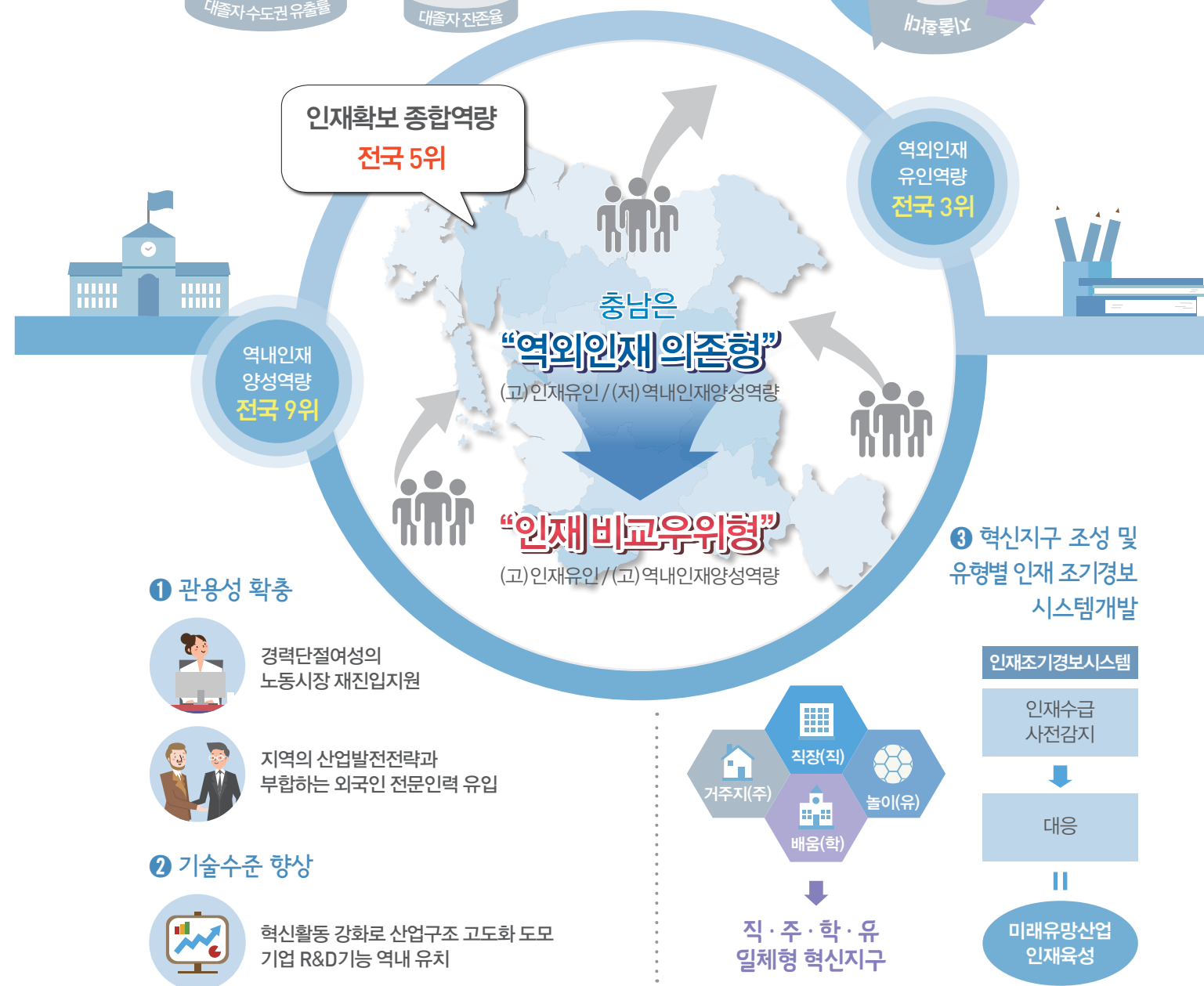
## 인재를 둘러싼 두뇌전쟁! 충남이 인재를 유인·양성하려면?

### 수도권으로 Go! Go! 지역내 인재유출 Hig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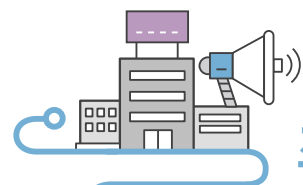
※자료: 고용정보원, 「대졸자 직업이동 경로조사」(2013년)



### 인재와 기업입사·고용·지역성장간 관계







## 최근 디스플레이산업 현황과 정책 제언

### ‘세계 시장의 성장을 이끄는 OLED’

IHS 2016년 1분기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세계 디스플레이 시장 규모는 1,274억불이었으며, OLED의 성장에 따라 2022년에는 1,487억불이 전망되고 있다. LCD 시장은 OLED의 가격 경쟁력 상승 및 수요 증가로 축소된 반면, OLED 비중은 '15년 10%에서 '22년 25%까지 확대 될 전망이다.

### ‘최근 디스플레이 수급 및 가격 동향’

2015년에 이어 2016년도 중국 업체들의 지속적인 생산라인 증설은 수급 불안정의 가장 큰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2016년 공급과잉 수준을 살펴보면 1분기에는 26%, 2분기에는 21%로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015년 중국 생산라인 증가는 32인치와 같은 특정 패널에만 집중되었으나, 올해부터는 40인치 이상 패널비중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 높은 공급과잉은 하반기에는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IHS 자료에 따르면 글로벌 디스플레이 공급과잉 수준이 3분기 8%, 4분기 6%까지 개선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지진 영향을 받은 대만 이노룩스의 가동률이 일시적으로 하락한 영향도 공급과잉 개선에 영향을 주었다. 이에 따라 하반기는 수급개선에 따른 LCD 패널가격 회복세가 기대된다. 비록 이번 LCD의 수급개선은 공급변수에 의해 시작됐지만 최근 중국, 북미 시장을 중심으로 한 55, 65인치 대형 TV 판매가 점차 증가 추세에 있는 점은 수요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판단 된다.

### ‘글로벌 시장 점유율 분석’

LCD는 우리나라가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를 유지중이나 중국 점유율이 빠르게 상승 중에 있다. 중국은 '10년 세계 LCD 시장 점유율 4.1%에서 '15년 15.5%로 증가한 반면, 같은 기간 한국은 44.8%에서 39.2%로 하락하였다. 2015년 글로벌 OLED 시장은 한국이 96.2%로 독점에 가까운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중소형

OLED 및 초기단계인 대형 OLED 시장 모두 우리가 주도 중이며, 특히 대형 OLED 시장의 선점을 통한 주도권 확보가 중요하다. OLED는 향후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등 차세대 디스플레이 구현의 기반이 되는 기술로서 경쟁국에서도 맹렬히 추격 중인 상황이다.

### ‘신산업 OLED의 중요성’

OLED는 ICT 융합을 통한 기존에 없는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신산업이다. OLED만이 구현할 수 있는 장점을 이용하여 타산업과의 융복합을 통해 건축, 광고, 자동차 등으로 새로운 시장 창출이 가능하다. 또한 향후 5년간 연평균 21.4% 성장률로 시장 규모 확대가 전망된다. OLED TV의 대중화 및 Head Up Display, 스마트워치, 자동차용 등 신시장에 대한 OLED 침투율이 2015년 10%에서 2020년 22%로 확대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 ‘정책 제언’

디스플레이가 신시장을 개척·창조할 수 있도록 중간재 기능을 넘어서는 성장 한계 극복이 필요하다. OLED 기술을 이용하여 구부릴 수 있고(Flexible), 말 수 있고(Rollable), 접을 수 있는(Foldable), 그리고 투명한(Transparent) 디스플레이가 대표적이다. 진보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디스플레이 산업은 타산업과의 융복합을 통해 사업 영역을 확장해 나가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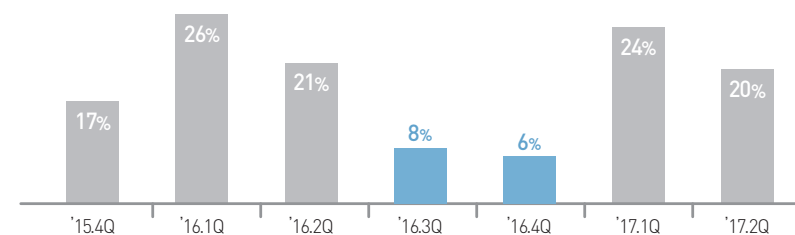
또한, 패널산업 대비 R&D 인적자원이 부족하여 기술경쟁력에서 열세인 후방산업(소재·장비)의 석·박사급 고급인력양성으로 중소·중견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이를 통해 차세대 디스플레이 시장을 조기 창출할 수 있는 핵심 장비·부품소재 기술력을 확보해야 한다. 우리나라가 장기적으로 디스플레이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후방산업의 기술력 향상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을 끌어 올려야 할 것이다.

저자 \_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산업지원팀장 김현진



## 지역의 성장 동력, 우리나라 디스플레이산업의 현주소와 미래는?

### 디스플레이 수급과 가격 동향



### • 2016년 하반기 공급과잉 완화

- ① 공급측면: 대만지진으로 이노룩스 가동률 일시 하락
- ② 수요측면: 중국·북미시장 TV 수요 증가

↓  
LCD 패널가격 회복세 기대

### 세계시장을 이끄는 “OL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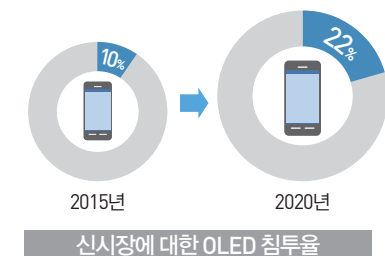
세계 디스플레이 시장규모



### 신산업 OLED 시장의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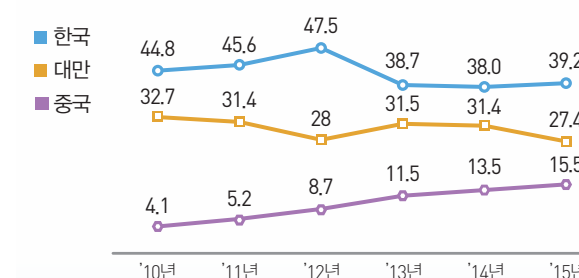
향후 5년간 연평균

21.4% 성장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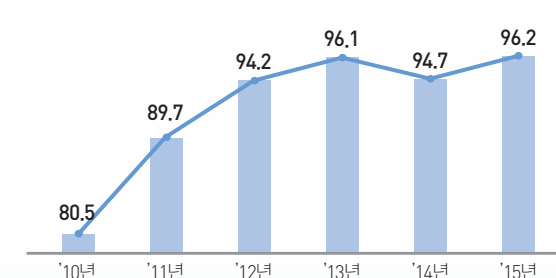


### 우리나라 디스플레이산업의 시장 점유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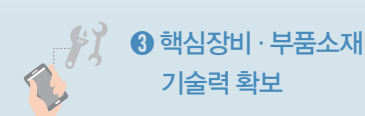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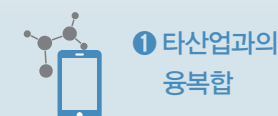
중국의 성장, 주요 국가별 LCD 시장 점유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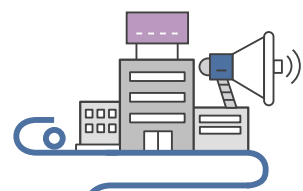
한국의 주도권 확보! OLED 시장 점유율



우리나라  
디스플레이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자료: IHS



## 유가하락으로 인한 수출 부진, 충남지역 수출은?

### ‘2014년 6월말 이후 국제유가 70% 이상 하락’

2014년 중반 배럴당 100달러 이상수준에서 머물던 국제유가는 미국의 셰일혁명 쇼크로 하락하기 시작했으며 설상가상으로 OPEC 산유국간 생산량 합의 불발과 美 달러화 강세가 겹치면서 올해 초 배럴당 20달러 수준까지 떨어졌다. 과거 경험에 따르면 국제유가 하락은 제조단가 절감, 석유제품 가격 인하 등을 통해 우리 경제뿐만 아니라 전 세계 경제에 긍정적인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하지만 최근의 국제유가 변동이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부정적인 효과가 긍정적인 효과를 능가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는 유가급락에 따라 원유 수출국의 수입수요가 감소하고, 최근 세계적인 저성장 기조와 맞물려 당초 기대만큼 원유수입국의 수입수요가 증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과연 국제유가 하락은 우리 수출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을까?

### ‘2015년 우리나라 수출은 8.0% 감소, 충남지역 수출은 3.1% 증가’

2015년 우리나라 수출은 글로벌 성장세 둔화로 인한 수입수요 감소, 국제유가 하락에 기인한 수출단가 하락, 중국의 가공무역 비중 축소와 수입대체 진전 등으로 전년 대비 8.0% 감소세를 시현하였다. 특히 국제유가 하락에 직격탄을 맞은 석유제품(MTI 133, -37.0%), 합성수지(MTI214, -15.1%) 등을 중심으로 수출 감소가 이뤄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남 지역의 수출은 지난해보다 3.1% 증가한 671.2억 달러를 기록하였는데, 이는 충남 지역의 수출이 지역별로는 중국, 미국, 베트남 등 원유수입국으로 이뤄지고 품목별로는 국제유가 변동에 영향

을 적게 받는 반도체, 평판디스플레이및센서, 무선통신기기 등을 중심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 ‘유가 영향 적은 충남 수출, 앞으로의 과제는?’

우리나라가 사실상 통제 불가능한 국제유가라는 외생변수에 충남지역의 수출이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점은 긍정적이며 대다수의 제조업 시설이 석유제품을 동력으로 사용하고 있기에 저유가는 제품 생산에 따른 비용절감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처럼 충남 지역의 수출은 선택과 집중을 통해 국제유가 변동에 따른 수출 부진을 피해갈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단기적으로는 중국·미국·베트남과 같은 주요 교역국의 경제 상황에 따라 앞으로의 수출 성적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수출 품목과 지역에 대한 선택과 집중은 양날의 검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예를 들어 2015년 기준 중국과 홍콩 수출에 전체 수출의 59.6%가 집중되어 있어 중국 경기 침체가 지속될 경우 충남지역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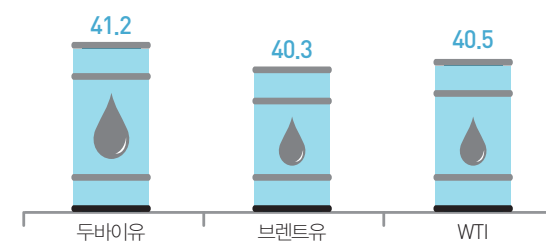
이에 따라 향후 충남지역은 중화권뿐만 아니라 미국, 베트남, 인도 등으로의 수출 다변화에 많은 노력을 투입해야 할 것이다. 또한 충남 지역 소재 석유·화학제품 수출 기업들은 최근의 나프타(납사)-원유 마진 확대로 확보된 현금자산을 활용하여 세계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고부가가치 화학제품 생산 확대에 힘써야 할 것이다.

저자 \_ 국제무역연구원 류승민



## 인재를 둘러싼 두뇌전쟁! 충남이 인재를 유인·양성하려면?

### 1 2016년 주요 기관의 평균 국제유가 전망과 요인



#### • 주요 국제유가 변동요인



### 2 최근 국제유가 하락의 경제적 파급효과는?



▶ 원유 수출국의 수입수요는 **감소**  
원유 수입국의 수입 수요는 **제자리걸음!**

2015년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충남의 수출은 3.1% 증가! 국제유가 영향 미미

### 3 충남의 수출 증가 요인은?

- 1 충남의 주요 수출국 = 원유 수입국
- 2 충남의 주요 수출 품목은 반도체, 평판디스플레이 등 국제유가에 부침이 적은 수출 구조

<p>중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반도체</li> <li>-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li> <li>- 무선통신기기</li> <li>- 합성수지</li> </ul>	<p>미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동차</li> <li>- 무선통신기기</li> <li>- 자동차부품</li> <li>- 반도체</li> </ul>	<p>베트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무선통신기기</li> <li>- 반도체</li> <li>-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li> <li>- 기구부품</li> </ul>
---	---	--

- 3 직격탄을 맞은 석유제품도 호주·미국·인도 등으로 수출이 증가

### ※ 충남 수출이 직면한 과제는?

- 중국경기 침체 우려 → 미국·베트남·인도 등 수출 다변화 노력
- 원재료와 가공제품간의 영업이익에 Focus → 생산단가 영향이 적은 고부가가치 화학제품 생산 확대

#### 유가제품의 생산단가







# 충남의 경기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

## 1 경기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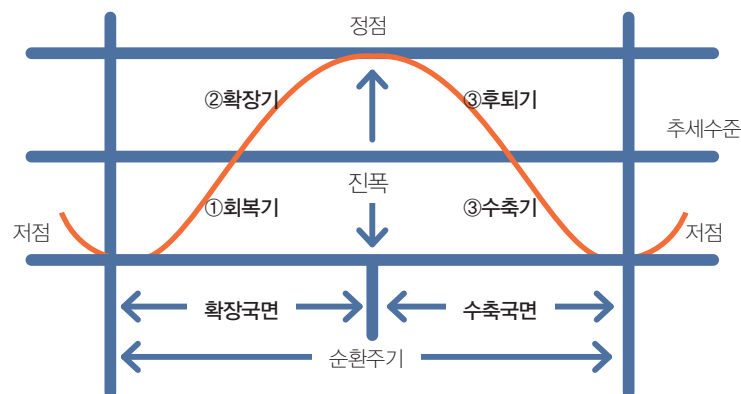
국내총생산을 나타내는 GDP, 국민소득(GNP)  
 기업활동의 실적, 계획, 동향 등에 대해 기업가들의 의견을 조사하여 지수화 하는 BSI(기업경기실사지수)  
 소비자출 처, 부채 등에 대해 소비자들의 의견을 묻는 CSI(소비자동향지수)  
 그 외 주가지수 등 경기흐름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지표들을 들 수 있음.

단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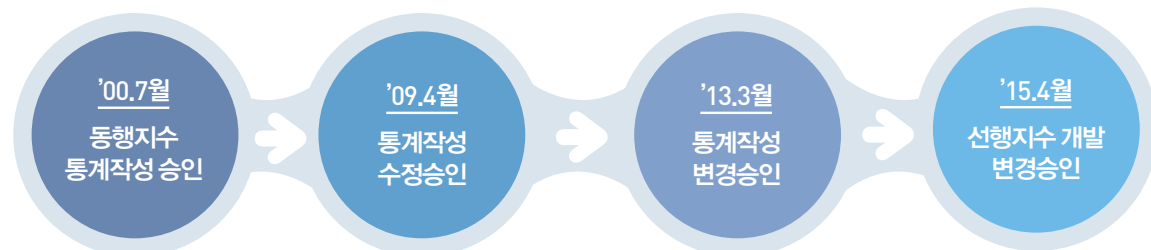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여 정보 수집에 많은 시간이 걸리거나  
 범위가 좁아 전체적인 경향성을 판단하기 어렵음

### ※ 경기종합지수란,

경제 전체의 경기 동향을 쉽게 관측하고 예측하기 위해  
 주요 경제부분별 대표적인 지표를 종합하여 매월 산출한  
 지수로 경기변동의 국면, 전환점, 속도 및 진폭 등을 측정할  
 수 있도록 고안됨. 현재 경기를 나타내는 동행지수와  
 향후 경기에 대한 예측인 선행지수, 과거 경기를 재차  
 확인하는 후행지수로 이루어진. 순환변동치가 상승하면  
 경기 확장, 하락하면 경기 수축을 나타내고, 순환변동치가  
 가장 클 때가 경기정점, 가장 작을 때가 경기저점이라 함



## 1 충남경기종합지수 현황은? 동행지수와 선행지수 발표!



- 비농가취업자수
- 산업생산지수
- 대형소매점판매액지수
- 판매전력량
- 수출액
- 수입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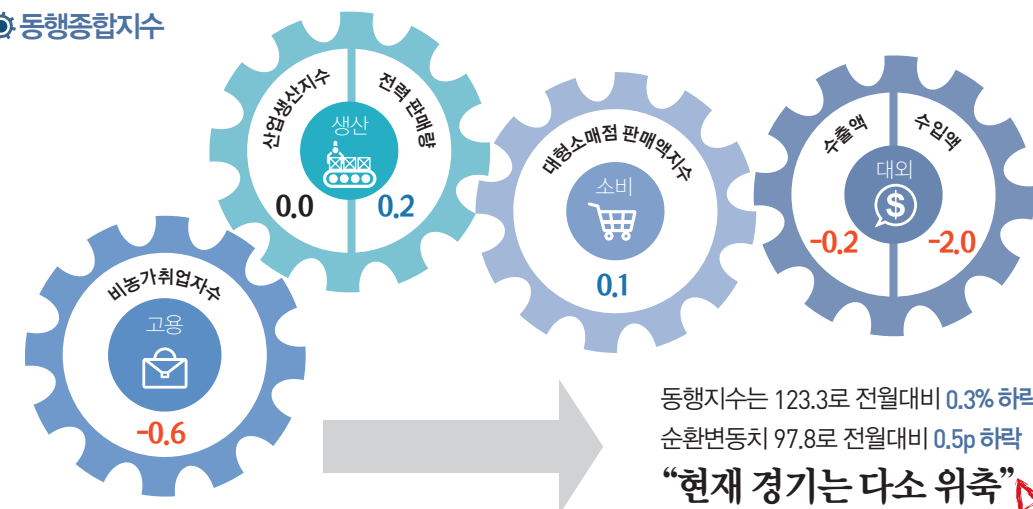


- 신규구인인원(충남)
- 제조업재고순환지표(충남)
- 비제조업자금사정\_실적(충남)
- 주가지수(KRX\_Semicon)
- 반도체수출입물가비율(전국)
- 자본재수입액(충남)
- 제조업중간재출하지수(충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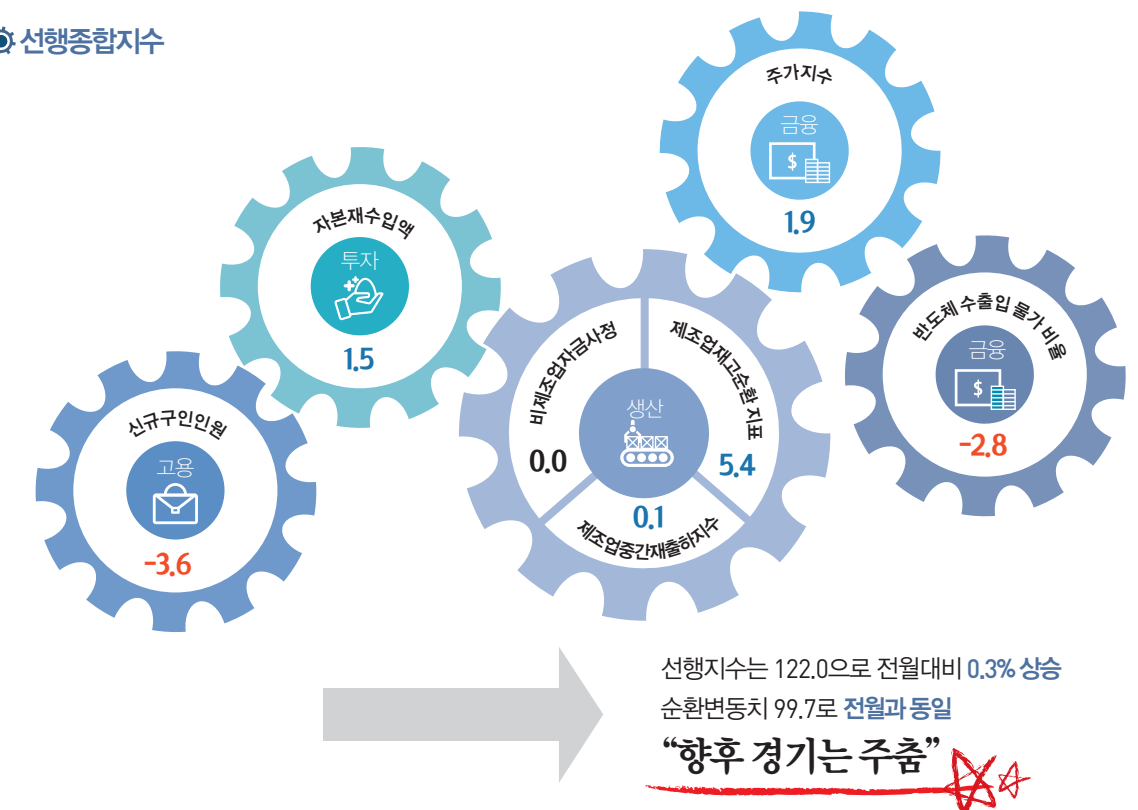
## 3 2016년 4월 충남경기종합지수 동향은?

※ 단위 (%)

### 동행종합지수



### 선행종합지수





## 2016년 하반기 12대 주력산업 전망

### 수출 : 조선 · 반도체 등 부진 지속, 디스플레이 · 일반기계 증가세 전환

2016년 12대 주력산업의 하반기 수출은 상반기에 이어 감소세가 지속될 전망이나 하락 폭은 둔화될 전망이다. 주요 산업 대부분이 주력수출 시장인 신흥시장 수요부진, 중국업체 경쟁력 상승 등의 요인으로 수출 감소세 지속 전망되나 전년 동기 실적부진에 따른 기저효과로 하락세는 다소 둔화될 예정이다.

업종별로는 조선, 반도체 등 대부분 업종에서 부진이 지속되나, 디스플레이, 일반기계, 철강 등은 증가세로 전환될 전망이다. 조선은 상선인도 물량의 지속적 감소, 고가 해양플랜트의 계약 취소 및 연기 등이 이어져 전년 동기 대비 11.8% 감소가 예상된다. 소재산업군은 석유화학, 정유, 섬유 등이 감소세를 지속하며 철강은 국제가격 및 신흥국 수요 회복으로 전년 동기 대비 2.5% 상승이 전망된다. 디스플레이는 공급 축소, OLED 수요 증가 등의 긍정적 요인이 우세하여 전년 동기 대비 5.9% 증가할 전망이다. 반도체는 중국 성장 둔화, 수요감소 및 미세공정 전환에 따른 수출상승으로 가격하락이 예상되면서 10.1% 큰 폭의 하락세가 예상된다.

### 내수 : 대부분 감소 추세 속 IT기기, 정유 등은 소폭 증가

내수는 대부분 산업이 하락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IT기기, 음식료, 정유 등이 소폭 증가할 전망이다. 브라질 올림픽 특수로 가전, 디스플레이, 정보통신기기가 소폭상승 예상되며 정유는 유가하락에 따른 석유제품 수요 증가, 음식료는 가공식품시장 확대 등으로 증가할 예정이다.

반면 소비심리 위축, 설비투자 부진 등으로 일반기계, 조선, 섬유 등의 내수가 부진하고 이러한 전망산업의 부진으로 철강, 석유화학, 반도체 등도 하락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자동차는 수요 진작책으로 시행되었던 개별 소비세 인가가 하반기 종료되면서 감소세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 생산 : 전반적 부진 속, 조선과 반도체 특히 큰 폭 감소

하반기 생산은 대내외 경기침체로 인한 수요부족으로 대부분 산업에서 감소가 예상되며 특히 한국 제조업을 대표하는 조선, 반도체 등의 감소 폭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는 조선은 2014년 이후 지속되고 있는 심각한 수주 부진 영향으로, 반도체는 공급 조절을 위한 D램 생산 축소, 해외 현지생산 확대 등의 요인으로 큰 폭의 감소가 예상된다. 자동차는 생산을 견인해오던 내수가 감소세 전환이 예상되면서 2.3%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며 정유는 수출선 다변화와 수출물량 증가 등이 예상되어 전년 대비 3.6% 증가할 전망이다. 디스플레이는 수출회복, OLED 생산 증가 등의 요인으로 전년 동기 대비 4.1% 증가할 전망이나 상반기 부진을 만회하지는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 수입 : 대부분 하락하나 소비재 산업은 증가 예상

12대 주력산업의 하반기 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3.4% 하락이 예상되며 전망산업 생산 부진으로 소재산업군의 하락이 4.3%로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전반적인 소비심리 위축 속에서도 소비재 산업은 전년 동기 대비 1.7% 상승이 예상되며 이는 양극화되고 있는 소비 패턴에서 기인한다. 가전은 구매여력 부족으로 중저가 제품 선호가 늘어나고 중국 가전업체의 국내 진출 확대, 해외생산 제품 역수입 증가가 예상되며 정보통신기기는 신규 스마트폰 출시와 스마트폰 부품 수요 증가로 전년 동기 대비 2.3% 증가할 전망이다. 자동차는 수입차 보유대수 증가에 따른 AS 부품 수요 증가 등의 요인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저자\_산업연구원 김경유



## 2016년 하반기, 충남의 주력산업 전망은?

- ✓ 선진권 혼조세, 개도권 침체로 대부분의 주력산업이 부진할 것으로 예상
- ✓ 저성장 체제 지속 + 중국 등 신흥시장 리스크
- ✓ 저유가 기조가 다소 완화되는 것은 긍정적 요인이나 신흥시장 경기회복은 다소 시간이 필요

■ 수출 ■ 수입 ■ 생산 ■ 내수 **증가요인** / 감소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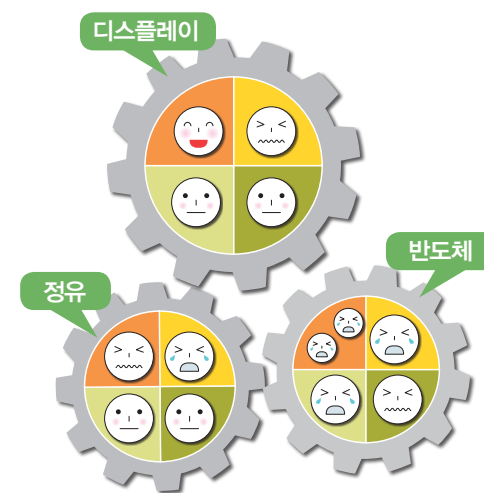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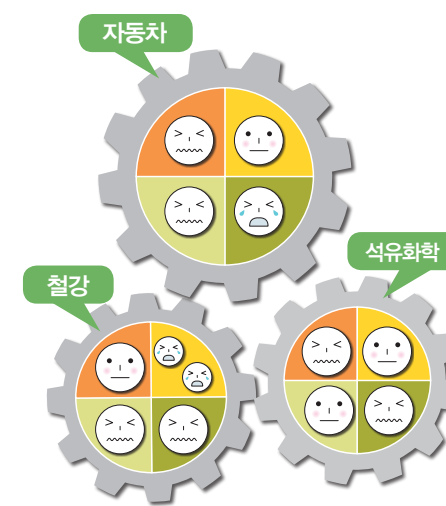
**수출**: 신흥시장의 경기침체 지속, 미국 금리 인상에 따른 미국내 할부판매 비용 증가  
**내수**: 개별소비세 인하 종료, 선수요 실현



**수출**: 글로벌 공급과잉 기조 지속  
**국제가격 회복, 신흥국의 수요 회복**  
**내수**: 기저효과 > **건설용 철강소비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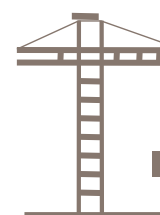
**수출**: 중국의 자금률 상승, 중동업체 등 경쟁력 상승 < **수출단가 상승** = 낙폭둔화  
**내수**: 전방산업(자동차, 가전 등)의 생산 부진, 범용 제품 생산 감소(석유제품)



**수출**: 일본업체 생산중단, 중국의 생산수율 부진 등 공급 축소와 OLED 수요 증가  
**내수**: OLED 스마트폰 판매 확대, 대형 UHD TV 가격 인하로 수요 증가



**수출**: 중국 성장 둔화 · 현지생산 증가, 수출 상승으로 인한 가격하락  
**내수**: 반도체 수요 견인 제품의 부진 > **웨어러블디바이스, IoT 등 신산업 수요 성장**



- 주: 1) 전망: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 기준 (😊😊 -10% 이하, 😊 -5~10%, 😐 -5~0%, 😐 0~5%, 😊😊 5~10%, 😊😊😊 10% 이상)  
2) 생산과 내수의 경우 자동차는 완성차, 조선은 건조량, 철강은 철강재, 석유화학은 3대 유제품, 정유는 석유제품, 섬유는 섬유사의 물량 기준이고 여타 업종은 금액 기준.  
3) 수출과 수입은 모든 업종에서 달러화 가격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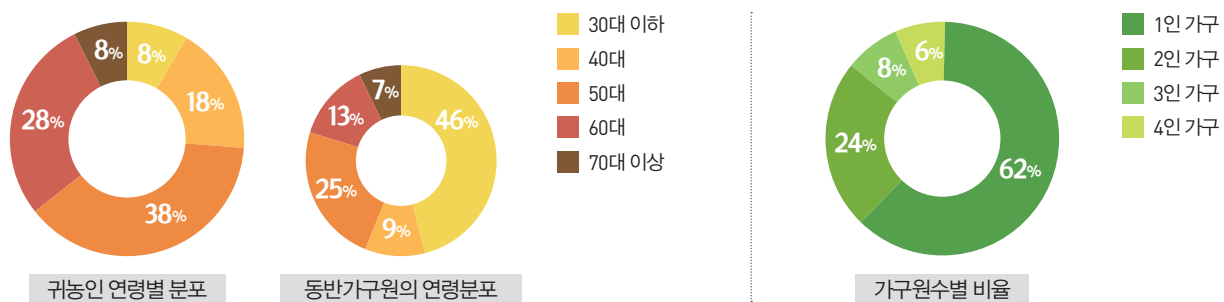
## 새로운 귀농인 통계, 충남은 어떠한가?

- ✓ '15.1월 제정된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새롭게 정의된 귀농인 개념을 바탕으로 작성된 행정 자료 기반의 통계
- ✓ 귀농인이란, 동 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이 대상 기간 중 읍·면지역으로 이동하고, 농업경영체등록 명부, 농지 원부, 축산업등록명부에 등록된 사람을 말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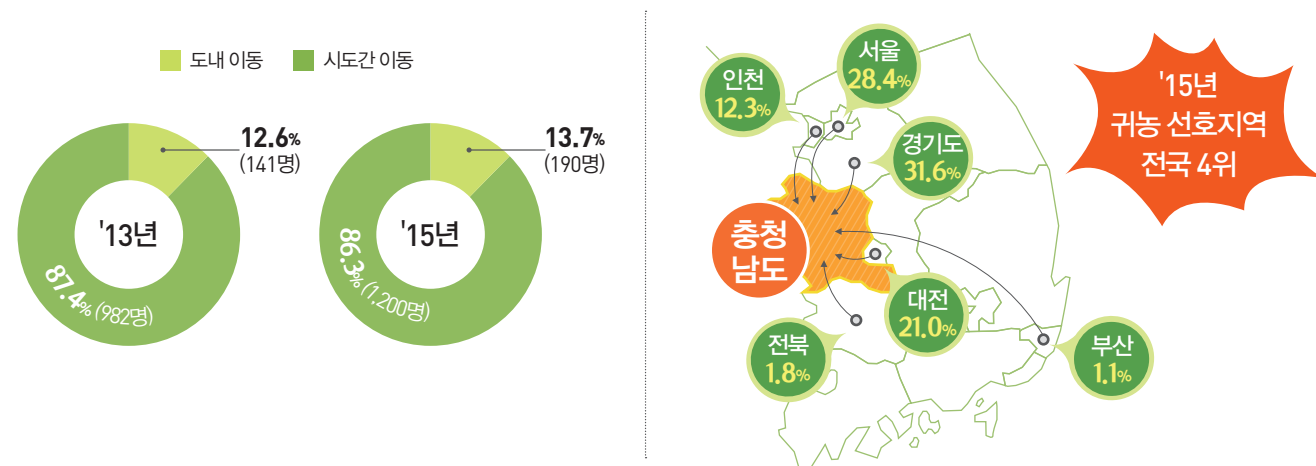
① '15년 충남으로 귀농한 사람은 1,390명으로 '13년 대비 23.8% 증가하였지만 함께 귀농을 선택한 가족은 많지 않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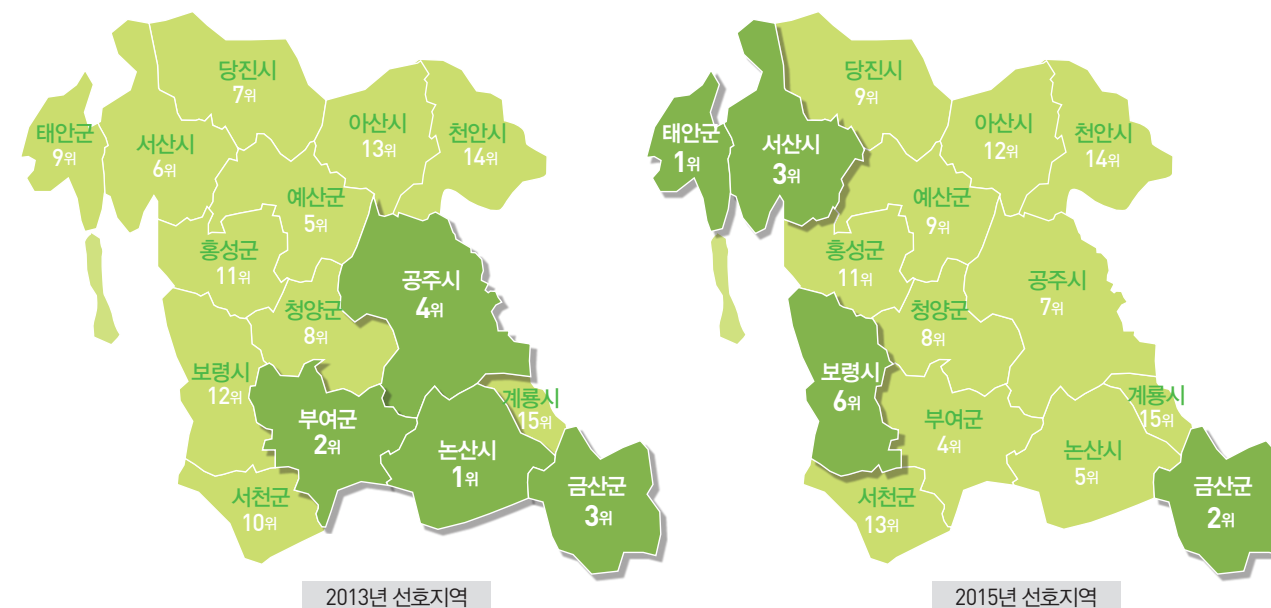
② 충남으로 귀농한 사람들은 50-60대가 가장 많고, 많은 분들이 혼자서 가구를 형성하였어요.('1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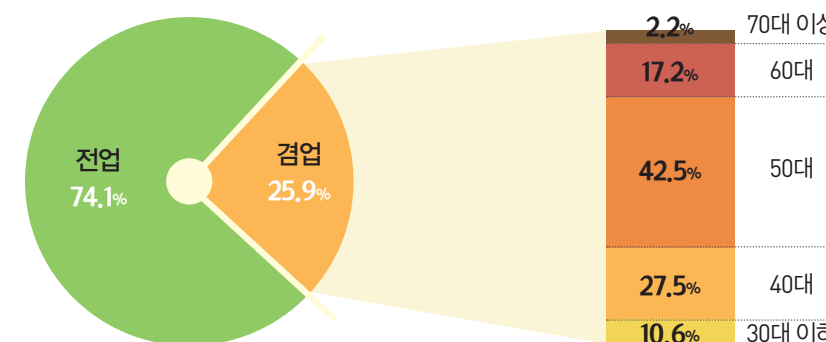
③ 귀농전 거주 지역을 보면, 수도권에서 가장 많이 유입되었는데 인근 대도시인 대전에서도 많이 오셨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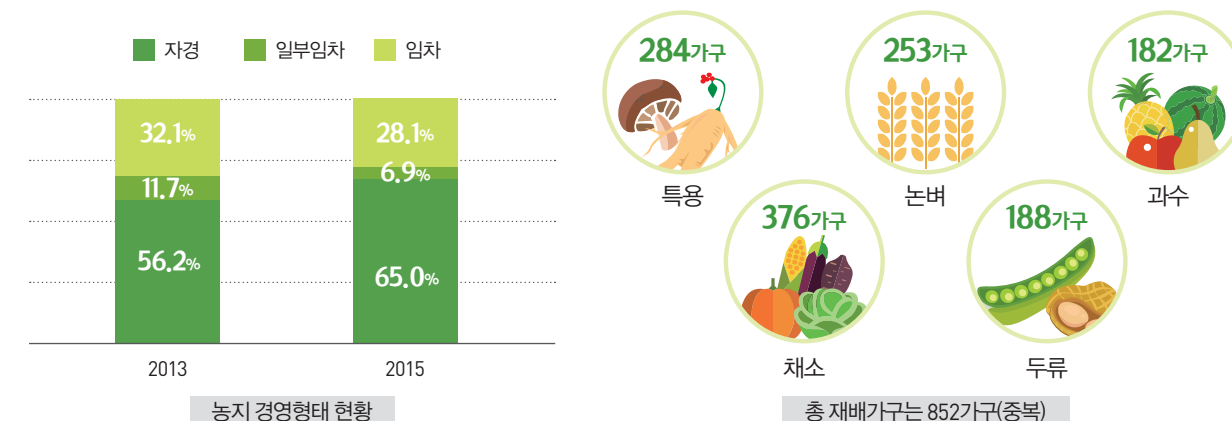
④ '15년 귀농인들이 선호한 충남 도내 지역은 태안, 금산, 서산, 보령이고, 여전히 인기지역이지만 '13년 보다 논산, 부여, 공주로의 귀농은 줄었어요.



⑤ 아, 귀농인들이 농업에만 종사 하나고요? 대부분 농업에 종사하지만 1/4 정도는 다른 일도 함께 하고 있어요.



⑥ 귀농인의 65%('13년 56.2%)가 본인 소유의 땅에서 농사를 짓고 있고, 남의 땅을 빌려서 경작하는 임차 가구 수는 줄어들었어요. 재배작물은 특용·논벼·과수 등 주요 농작물과 함께 채소나 콩도 재배를 한답니다.







## 석유화학 경기 낙관적 전망을 경계하는 이유

석유화학산업, 미래 리스크 점검과 대비가 필요하다

### ‘석유화학 낙관적 경기전망으로 설비투자 활성화’

최근 한국 석유화학산업에 대하여 상반된 시각들이 공존하고 있다. 구조조정 대상업종으로 거론되는가 하면, 상반기 실적도 좋고 하반기 전망도 양호한 업종이라는 발표도 나온다. 또 중장기적으로 중국발 공급과잉으로 미래가 어둡다는 전망이 있는가 하면, 대형 설비 투자가 위축되면서 중기 공급부족 현상이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현재 업계의 산업경기 전망은 대체적으로 긍정적이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석유화학의 호황은 2017년경 완만하게 하향세로 바뀌겠지만 큰 어려움 없는 조정 수준이고, 1~2년의 조정기간을 거쳐 다시 상승세로 반전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외에서 위축되었던 설비투자가 다시 활발하게 검토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거시 환경 변수나 경쟁구도 변화를 볼 때, 석유화학 산업의 경기를 예상보다 어렵게 만들 수 있는 리스크요인들이 적지 않다.

### ‘경기 불확실, 유가, 중국기업 급성장 등 리스크 요인 산재’

첫째, 수요성장이 기대에 못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 글로벌 기관의 경제성장률 전망이 매년 하향 조정되고 있는데, 이를 기반으로 하는 석유화학 수요 성장도 예상에 못미칠 가능성이 있다.

둘째, 유가가 예상보다 빠르게 상승하는 리스크다. 가스 및 석탄 기반 기업들과 경쟁해야 하는 상황에서, 고유가는 제품 수요 위축과 상대 원가경쟁력 약화로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셋째, 중국시장의 자급화가 석유화학 전제품으로 확산되는 것과, 또 중국 석유화학기업이 시장 주도권을 갖는 제품들이

이제는 범용뿐만 아니라 기능성제품에서도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네번째 리스크는 최근 경기에 대한 낙관적 전망이 확산되면서, 석유화학 설비투자 검토 및 추진이 증가한다는 것이다. 현재 검토 계획들 중 과반수 정도만 추진되어도 중장기 경기에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다섯번째는 중국의 석탄화학처럼, 미국과 중동 등 산유국에서 천연가스나 원유에서 직접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공정의 상업화가 검토되고 있다. 경쟁구도가 더욱 복잡해질 수 있는 요인이다.

### ‘낙관적 편향성을 극복하고, 리스크에 선제적 대응방안 준비 필요’

향후 이런 리스크 요인이 석유화학산업 경기에 어떤 양상으로 영향을 미칠지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그 발생 가능성과 영향력은 결코 작지 않다. 기업 스스로 선제적으로 검토하고 대응방안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대형 설비투자에 보다 신중을 기하면서 재무건전성을 관리하고, 제품 품질 고도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한국 석유화학산업의 현재 상황은 다른 장치산업 대비 양호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환경이 우호적인 현 시점이 향후 악화될 수 있는 상황을 냉철하게 분석하고, 위기를 준비할 수 있는 적기다. 중요한 것은 기업 내부에서 누군가는 사업의 객관적 상황과 리스크를 철저히 검토하고 공유하면서, 충분한 대응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근본적으로는 기업 스스로의 경쟁력으로 사업을 성장시킬 수 있는 체질을 구축하기 위해 더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변화를 주도해야 할 것이다.

저자\_LG경제연구원 임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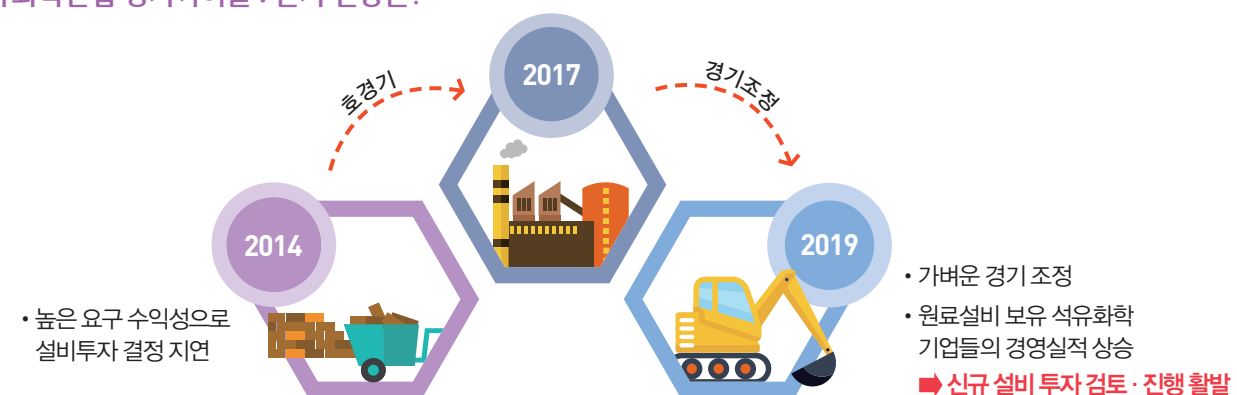


## 석유화학산업, 리스크 점검과 대비가 필요하다!

### ★ 석유화학산업 전망! 구조조정 대상 VS 장밋빛 미래?!



### ★ 석유화학산업 경기싸이클 : 단기 전망은?



### ★ 한국 석유화학산업의 Four risk

<p><b>“수요 성장”</b></p> <p><b>One.</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낮은 세계경제성장률</li> <li>• 일시적 경기 위축? vs 한단계 낮아진 균형성장수준?</li> </ul>	<p><b>“유가 상승”</b></p> <p><b>Two.</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유가 환경은 한국 석유화학기업에겐 부정적</li> <li>• 중기 균형 유가 배럴당 50~60달러 산유국 경기 침체 · 정치 불안정, 세계적인 석유개발 투자 감소 등으로 예상보다 빠른 고유가 시대 진입 가능성 존재</li> </ul>
<p><b>“중국 시장”</b></p> <p><b>Three.</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장의 기반이자 핵심 경쟁력 중 하나</li> <li>• 최근 석유화학제품 9개 품목의 순수입 감소, 중국 자급체제 제품은 수출시장의 경쟁자</li> </ul>	<p><b>“공급 과잉”</b></p> <p><b>Four.</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국, 중동, 동남아 등 에틸렌 설비 투자 계획 확정 또는 검토</li> </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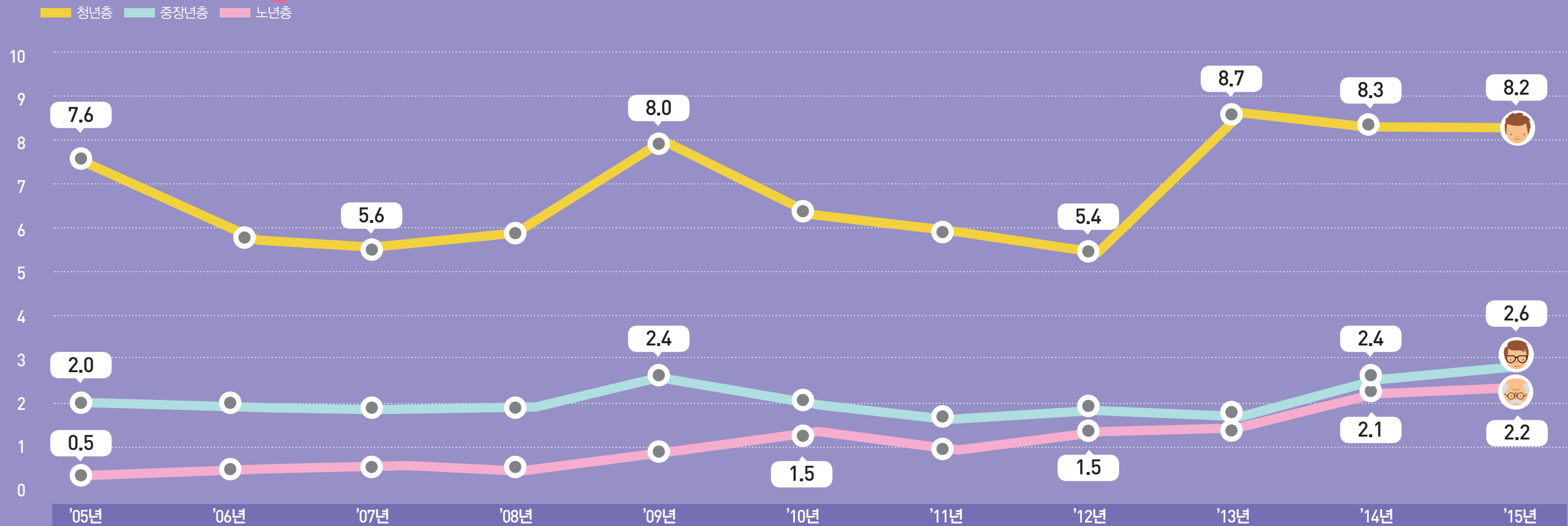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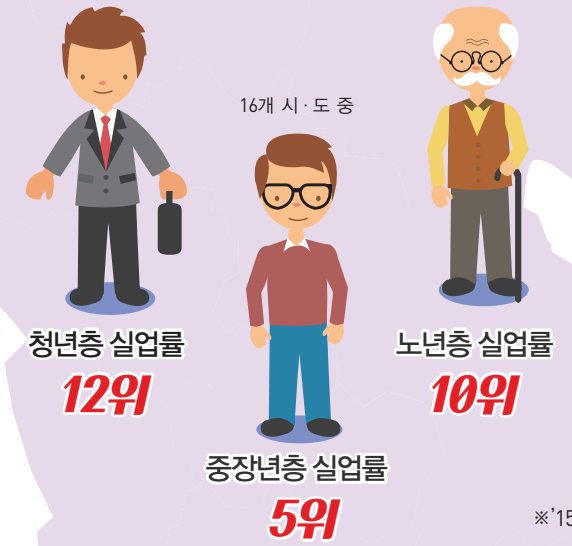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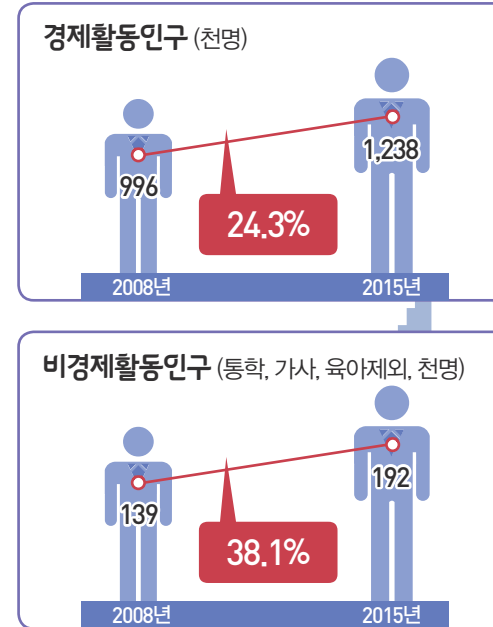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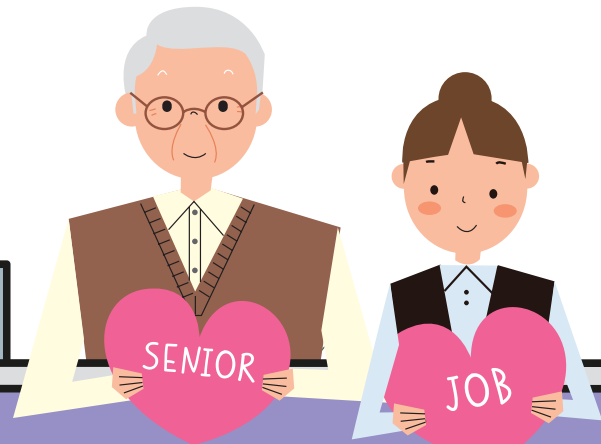
### ★ 업계의 양분된 시각을 반영한 한국 석유화학 기업의 과제는?

• 우호적 환경이 악화될 경우를 냉철하게 분석, 판단 ▶ **선제적 대응 준비**



## 최근 충남의 연령별 실업률 추이는?

- ✓ 청년층은 '09년 수준, 중장년층과 노년층의 실업률은 상승세
  - ✓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와 경제활동인구의 증가 등으로 50세 이상 실업률이 높아지는 추세
  - ✓ 16개 시도 중 청년층과 노년층 실업률은 낮은 수준이지만, 중장년층은 다소 높은 수준
  - ✓ 비경제활동인구 증가로 볼때, 청년층들이 체감하는 실업률은 다소 높을 것으로 예상됨
- ※ 경기가 둔화될 때, 노동시장 2가지 효과  
 ① 실망노동자(실업자 중 구직을 포기하며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와  
 ② 부가노동자(구직활동을 하지 않던 가구원의 일부가 취업활동에 나서는 것)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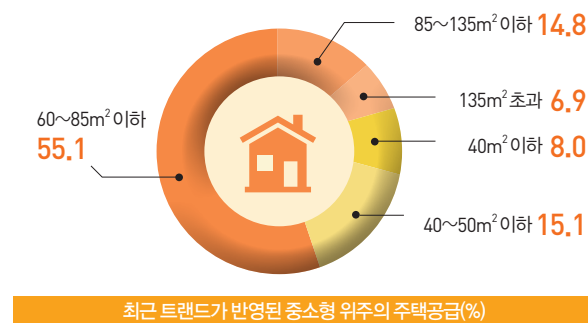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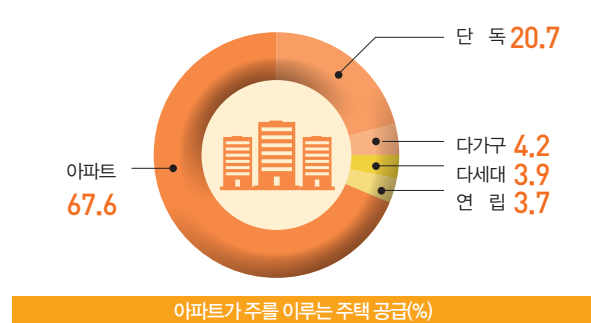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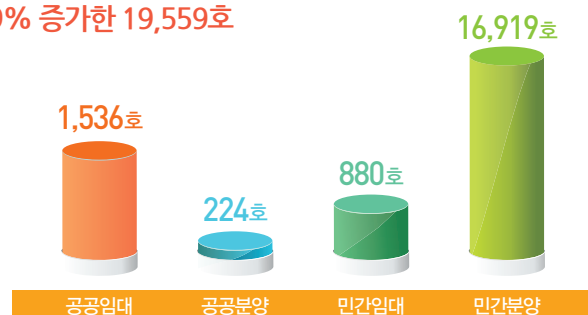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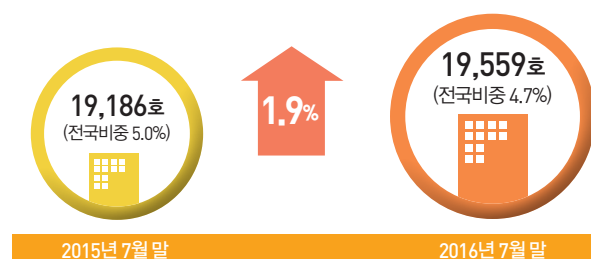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단위 : %, 연령별 구분 기준 : 청년층(15세~29세), 중장년층(30세~39세), 노년층(60세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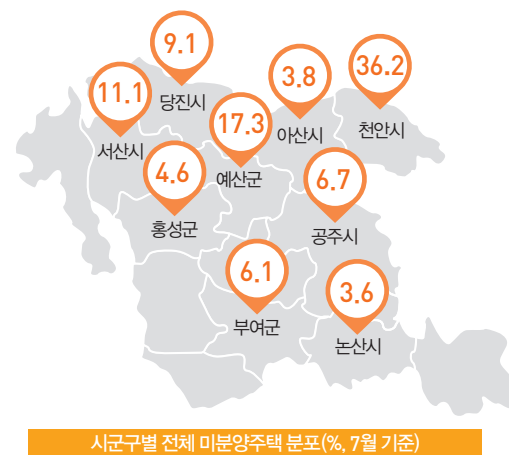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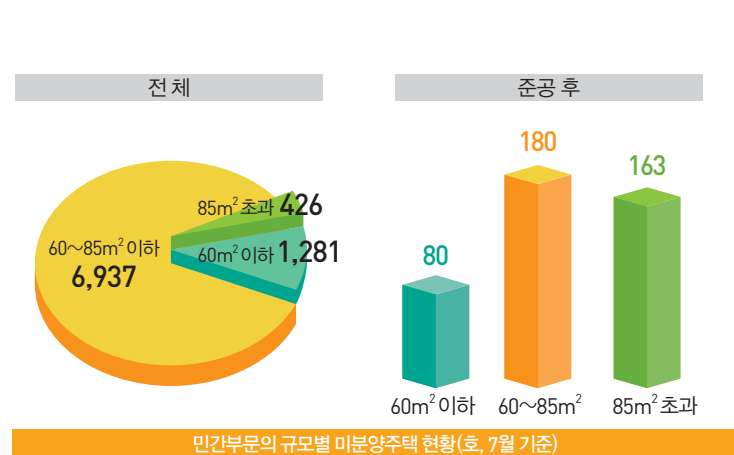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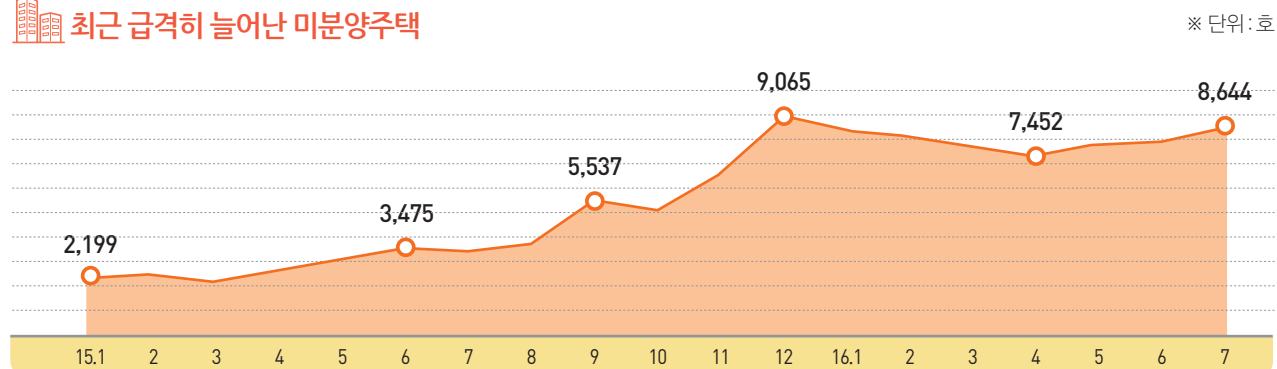


## 충남지역 아파트 및 임대주택 공급실적 및 현황은?

2016년 충남의 아파트 공급실적은? 전년동기대비 1.9% 증가한 19,559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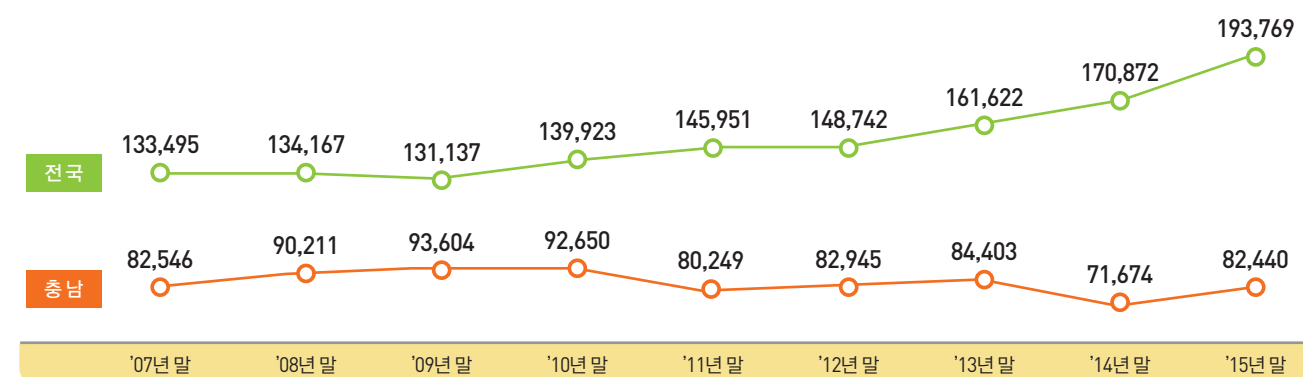


최근 급격히 늘어난 미분양주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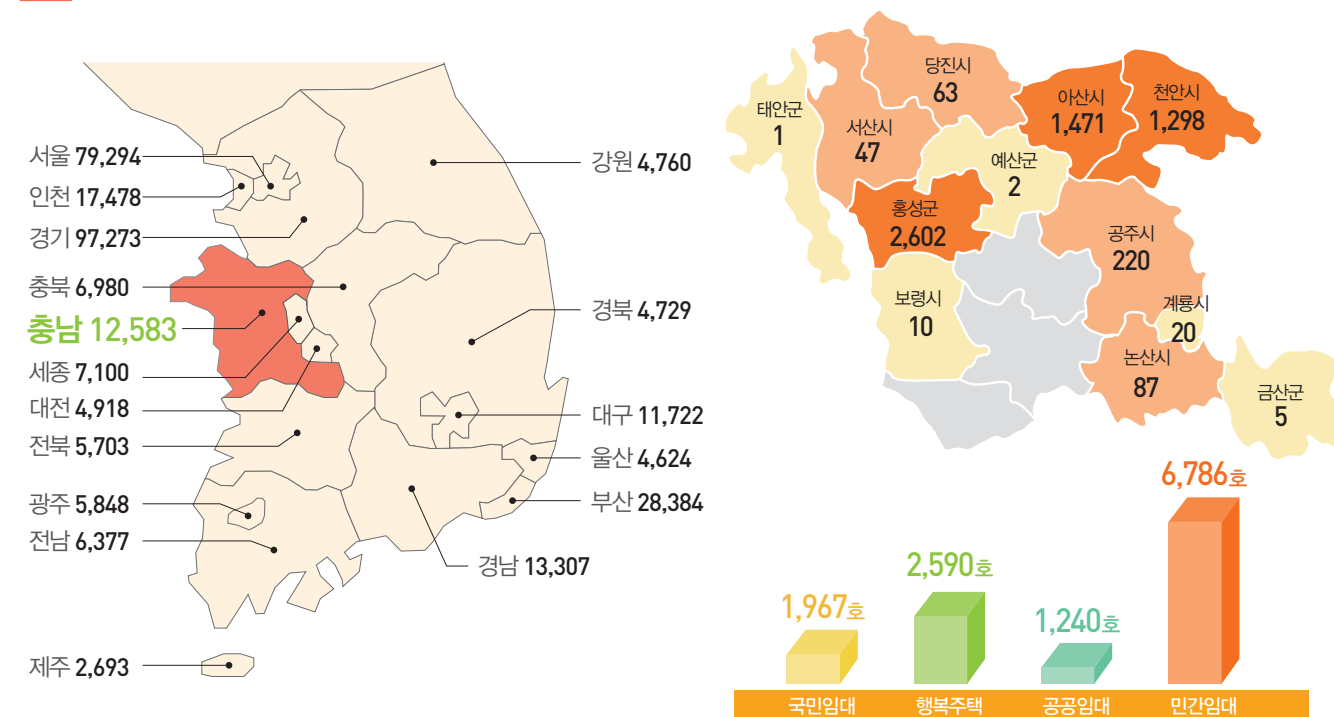
최근 감소세를 보이는 임대주택 재고현황! '14년 최저, '15년 반등

※ 단위 - 전국: 십호, 충남: 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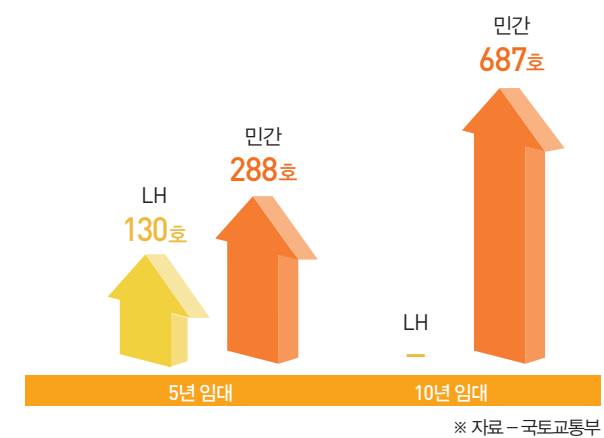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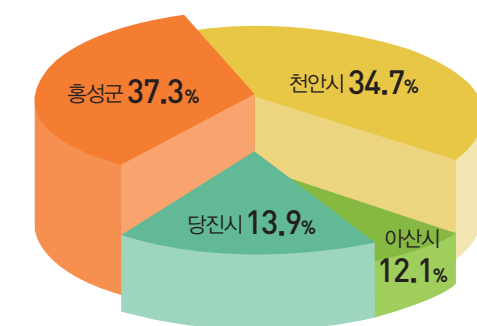


'15년 충남지역 임대주택 건설공급은 12,583호, 천안과 아산, 홍성지역에 집중된 분포

※ 단위: 호



'15년 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 실적은? 총 1,105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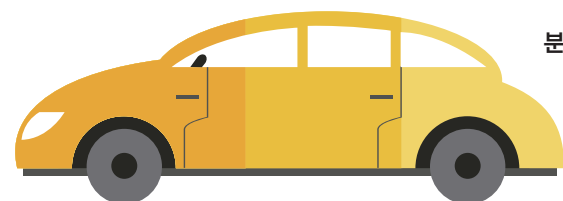


충남경제  
인포그래픽  
64

## 우리나라 튜닝산업! 현황과 미래는?

### 튜닝의 정의 및 분류

정의: 자동차의 성능향상이나 외관단장을 위한 구조·장치 변경 또는 부착물 추가(자동차관리법 제2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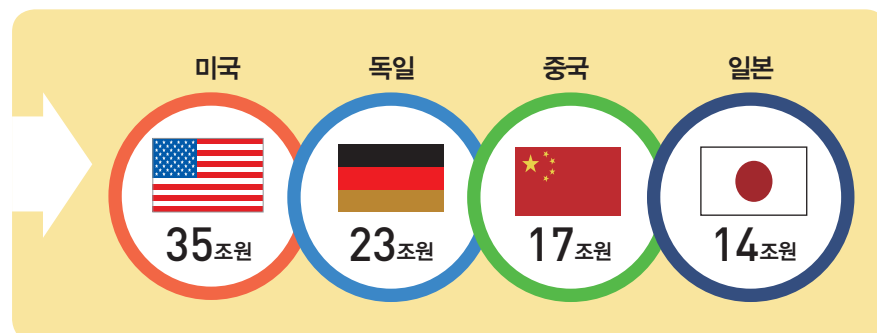


분류: 목적에 따라 빌드업·튜닝·드레스업 튜닝, 주체에 따라 소비자·제작자 튜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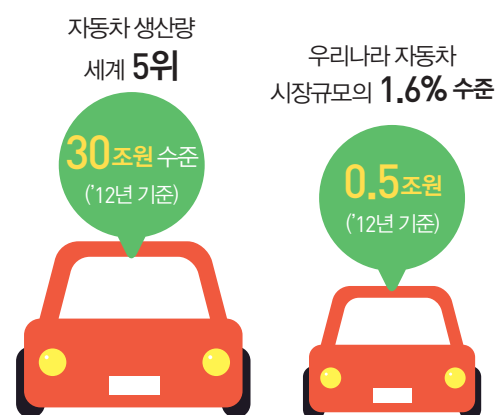
- (빌드업) 특수장치 부착, 구조변경 (튜닝) 엔진·주행 장치 변경 (드레스업) 외형변경, 악세사리 부착
- (제작자 튜닝) 소비자의 옵션 주문에 따른 튜닝

“ 최근 대전·충남지역의 **자동차튜닝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

### 세계 튜닝시장 규모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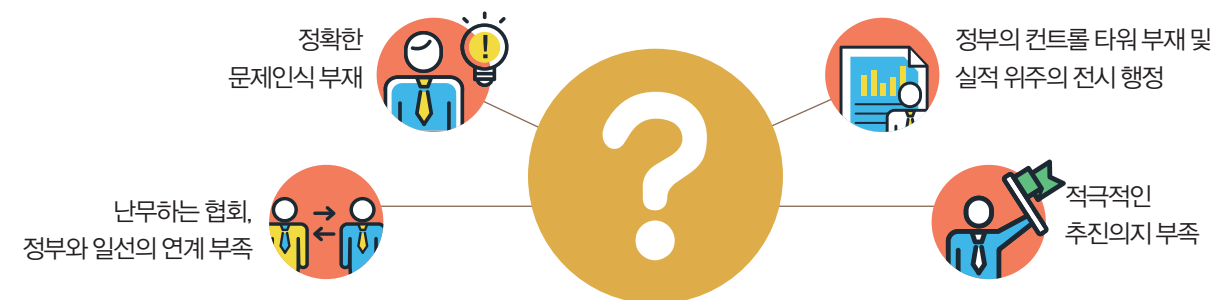
### 우리나라 튜닝시장 규모, 전체 자동차 시장 대비 미미한 수준



### 우리나라 튜닝 동호회 회원수 증가, 청년층을 중심으로 튜닝 수요 꾸준한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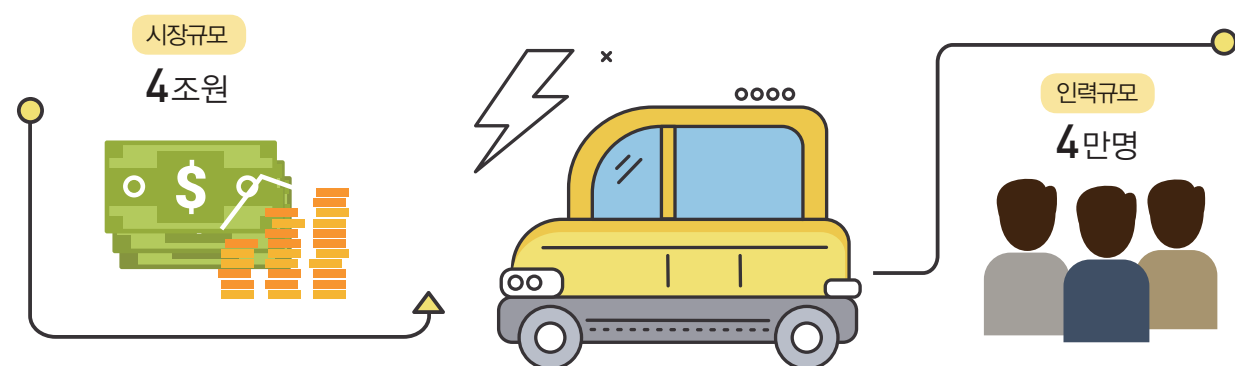
### 우리나라 튜닝산업 비활성화 원인은?



### 실질적인 해결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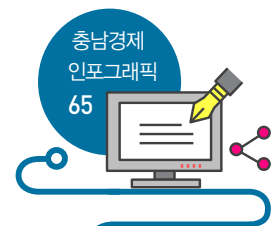


### 튜닝활성화의 기대효과(202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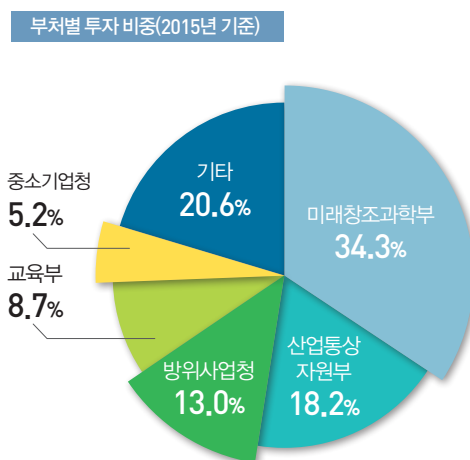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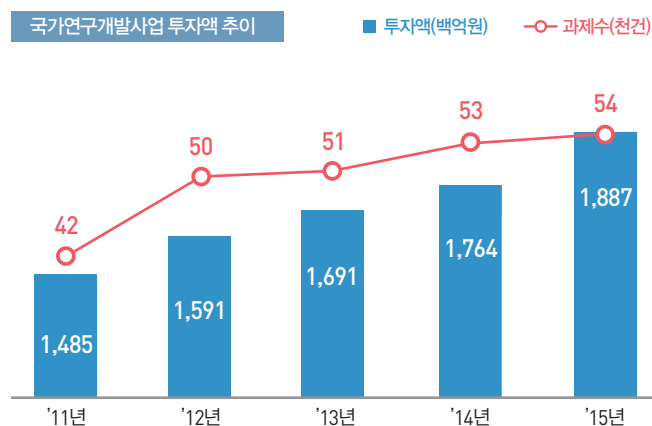
\* 보수적 가정을 통한 시장규모(경제성장률, 부품시장 성장, 1.5조원) + 정책효과 등 튜닝시장 성장가능성이 반영된 기대효과

※자료: 자동차 튜닝산업 진흥대책(2014.6.17., 관계부처 합동)  
대전충남지역 자동차 튜닝산업 활성화 방안 정책토론회 발제자료 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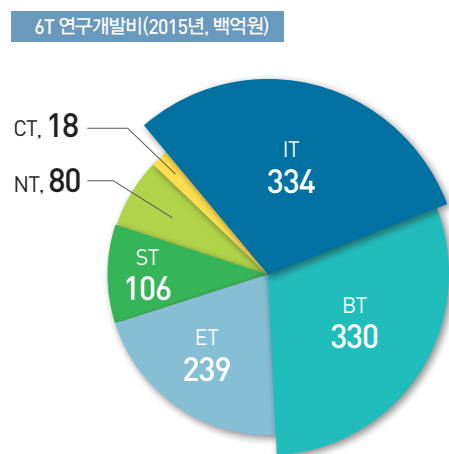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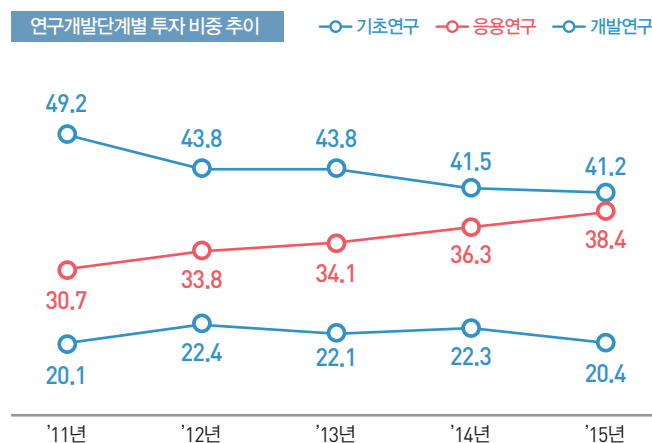


## 우리나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충남 현황은?

① '15년 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액 추이는 전년대비 투자액 7.0% 증가, 과제수 1.8% 증가  
미래창조과학부가 연구개발사업의 주도, 산업통상자원부, 방위사업청 등이 그 뒤를 이음



② 연구개발 단계별로는 기초연구분야의 투자 비중 증가  
'15년 미래유망신기술(6T) 투자는 전년대비 9.5% 증가로 국가연구개발사업 총투자액 증가율(7.0%)보다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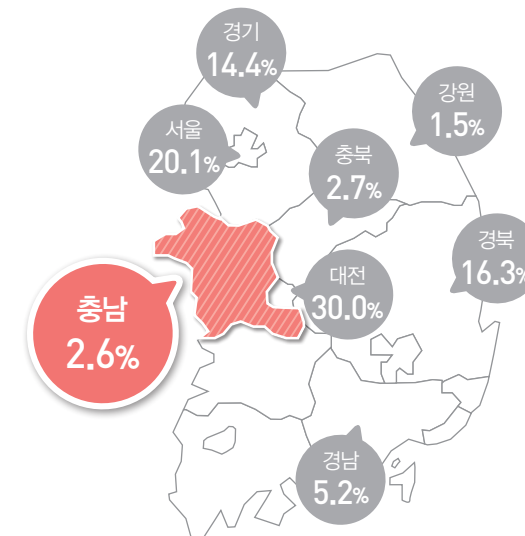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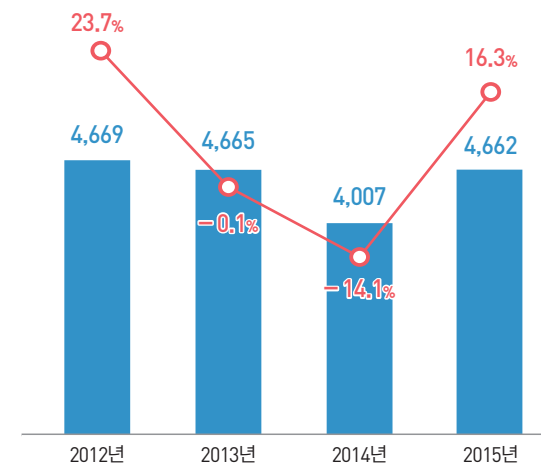
\* 6T란, NT(나노기술), BT(생명공학기술), ET(에너지환경기술), ST(우주항공기술), IT(정보기술), CT(문화기술)

③ 목적별로 보면, 전년대비 보건환경(14.9%)·우주(14.0%)·국방(7.0)·경제발전(6.2) 순으로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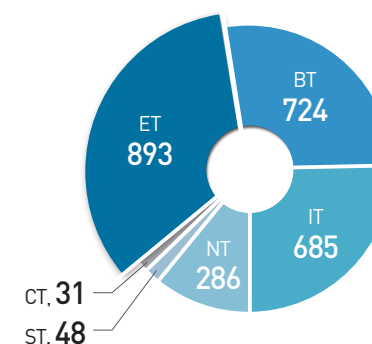
④ 충남지역의 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 현황은? '15년 총 투자액은 4천 7백억원으로 전년대비 16.3% 증가

• 2015년 우리나라 전체 총 투자액(18조 2천억원) 중 대전이 5조 4천억원으로 전체 30%를 차지, 충남은 전국 17개 시도 중 2.6% 비중을 나타내며 10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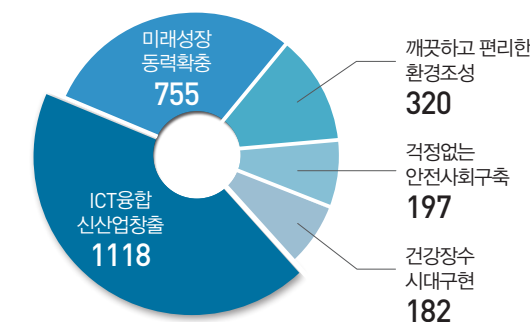
⑤ 미래유망신기술(6T) 투자는? 총 2,667억원

• ET(33.5%)·BT(27.1%)·IT(25.7%)를 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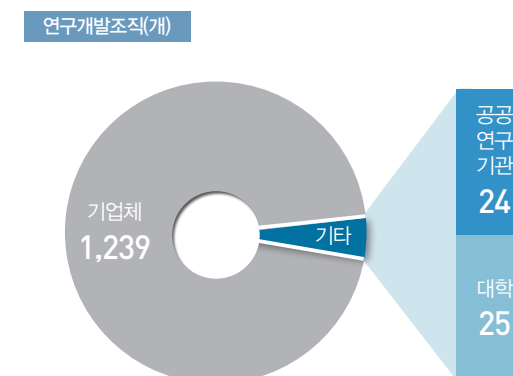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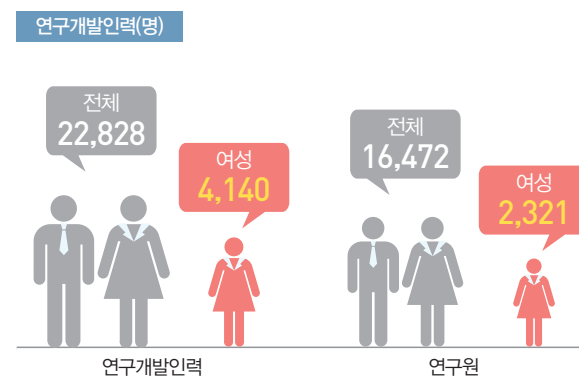
⑥ 국가전략기술 투자현황은? 총 2,573억원

• ICT융합 신산업 창출(43.5%)·미래성장동력 확충(29.3%)가 대부분을 차지



⑦ 충남지역 연구개발인력 및 조직 현황(2014년 기준)

• 전국대비 연구개발인력(연구원)의 비중은 전체 3.8%, 여성은 2.9% 수준 / 연구개발조직은 전체 1,288곳으로 기업체가 96.2%를 차지



※ 자료 : 한국과학기술 기획평가원 · 2015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 · 분석보고서 한국과학기술 기획평가원 · 우리나라의 지역별 연구개발 활동현황



## 충남지역 주력품목의 수출경쟁력 국제비교와 시사점

세계금융위기 이후 한·중, 한·일, 한·미 간 경쟁심화와 함께 충남 10대 수출품목의 韓 세계시장 점유율 소폭 하락

### 충남의 수출 주력품목 부진으로 수출비중 하락

우리 수출은 세계경제 저성장과 유가하락 등으로 지난해 8% 감소한데 이어 올해 1~8월에 8.8% 감소하면서 부진이 심화되었다. 충남 수출은 지난해 3.1% 증가, 올해 1~8월에는 4.1% 감소로 전체 수출보다 상대적으로 선전하면서 우리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14년 11.4%에서 2015년 12.7%, 2016년 들어 12.9%까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충남 수출은 반도체, 평판디스플레이, 무선통신기기, 자동차 등 주력품목을 중심으로 세계 수출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해 온 결과 10대 주력품목이 충남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90%에 육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주력품목의 수출이 오히려 더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충남 전체 수출에서의 10대 주력품목 수출비중이 2016년 1~8월에는 89.3%로 하락했다. 특히 석유화학제품, 석유제품, 자동차, 철강제품은 2015년에 이어 2016년에도 수출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평판디스플레이(2016년 1~8월 수출증가율 -25.1%)와 석유제품(-15.6%), 자동차(-12.4%)는 두 자리 수의 수출 감소를 기록하면서 수출비중이 큰 폭으로 하락하였다.

### 충남 10대 수출품목의 우리나라 수출비중은 하락, 세계시장 비중은 상승

충남 10대 수출품목의 우리나라 수출규모(2015년 기준)는 반도체, 일반기계, 자동차, 무선통신기기, 석유화학, 석유제품 순이다. 우리나라 총수출 대비 10대 품목 비중은 2011년 67.2%에서 2014년 68.2%로 상승했으나, 석유화학, 석유제품, 철강제품, 평판디스플레이 등의 비중 축소에 따라 2015년에는 66%미만으로 하락하였다.

반면 전 세계시장에서는 국제유가 급락에 따라 큰 폭으로 수출비중이 하락했던 석유제품을 제외한 무선통신기기,

반도체, 자동차부품 등의 비중 확대에 힘입어 10대 품목의 합계 수출 비중은 2011년 이후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보였다.

### 10대 품목의 세계시장 점유율 소폭 하락

우리나라의 세계시장 점유율은 평판디스플레이, 반도체, 석유화학, 무선통신기기, 자동차부품, 철강제품, 석유제품이 5% 이상을 기록했다. 세계 수출시장에서 10대 품목의 우리나라 점유율을 보면 반도체, 일반기계, 컴퓨터 등은 상승, 나머지 7개 품목의 점유율은 하락했다. 국가별로는 10대 품목의 세계수출시장에서 중국의 점유율이 크게 상승한 가운데 우리나라와 미국, 일본은 하락했다. 특히, 중국은 13대 전 품목에서 점유율 상승을 가져오며, 우리의 주력 품목을 계속 대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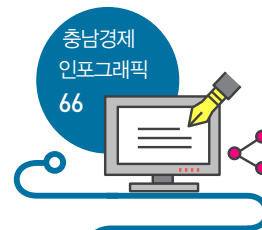
### 10대 품목의 수출경쟁 치열해져

세계시장에서 한·일 및 한·중, 한·미 간 10대 품목 수출 경쟁도는 전반적으로 상승 추세를 보였다. 10대 품목 중 8개 품목에서 한·일 간 수출경합도가 상승했으며,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일반기계, 철강제품 등 4개 품목은 한·일, 한·중, 한·미 간 경쟁도가 심화되었다.

### 수출 주력품목의 업그레이드와 수출구조를 개선해야

주력품목의 수출감소가 상당부분 수요둔화에 기여한 것으로 앞으로 수요증가에 따라 우리나라 및 충남 수출의 회복 가능성도 크다. 따라서 주력 제조업 내에서 새로운 수출상품을 발굴하고 현재의 주력산업과 제품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할 수 있도록 제조업의 스마트(Smart)화, 제조업과 서비스산업 시너지(Synergy), 소비재수출 확대, GVC 활용, 혁신과 구조개혁 등을 통해 수출경쟁력을 강화해나가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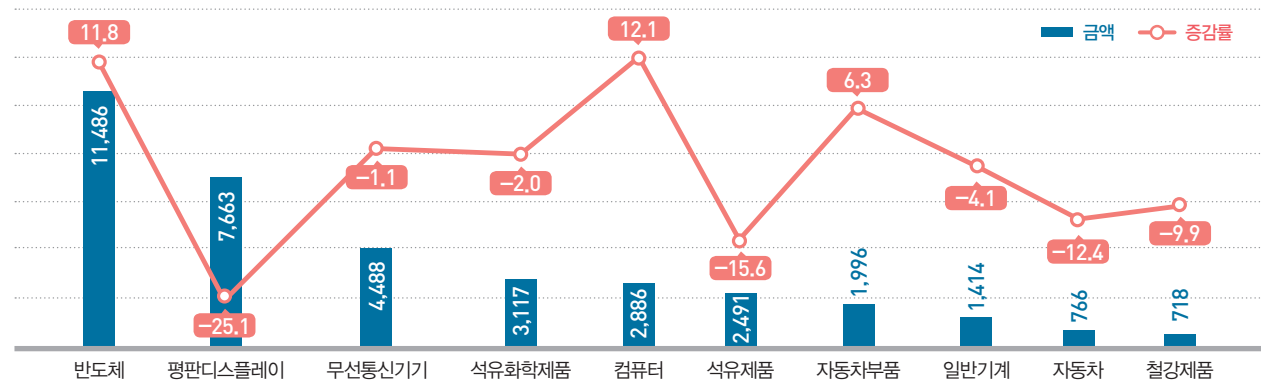
저자 \_ 국제무역연구원 문병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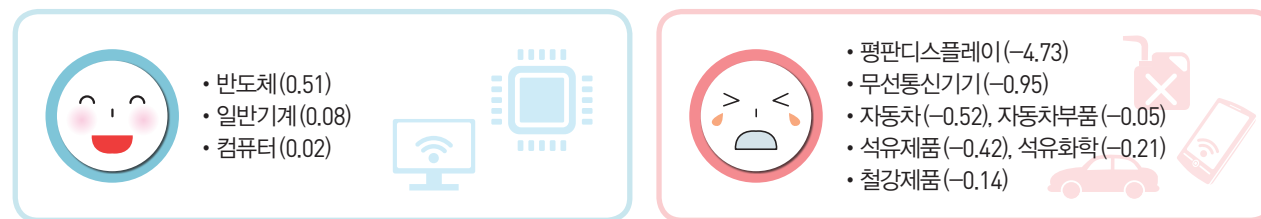
## 충남 10대 주력품목의 중국·일본·미국과의 수출경합도는?

### 충남의 10대 주력품목 수출 동향(MTI 3~4단위 기준, 백만달러, 전년동기대비 %)

- 충남 10대 주력품목 올 1~8월까지 수출액은 37,025백만불
- 충남 전체 수출에서 10대 주력품목의 수출비중은 지난해 90%에 육박하였으나 올해 1~8월까지 89.3%로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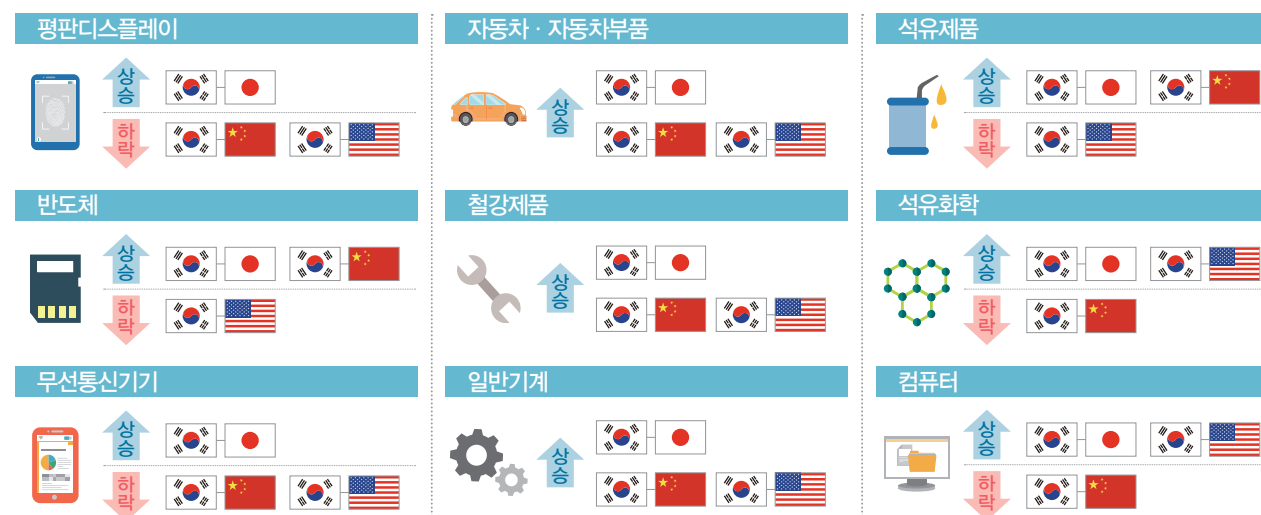


### 우리나라 10대 주력품목의 대세계 점유율은? 전체적으로 소폭 하락(%p)



### 10대 주력품목의 수출경쟁 점진 치열해져(2011년대비 2015년 수출경합도 비교)

- 「한·일」 수출경합도: 컴퓨터를 제외한 9개 품목의 수출경합도 상승 특히, 자동차부품 수출경쟁 심화
- 「한·중」 수출경합도: 자동차·자동차부품 수출경합도 상승 이어 일반기계, 반도체, 석유제품 경쟁도 상승
- 「한·미」 수출경합도: 자동차·자동차부품, 컴퓨터, 일반기계, 철강제품 수출경쟁 심화







## 아베노믹스 2기의 일본 전기전자 및 자동차업체, 구조조정을 통한 경쟁력 향상에 박차

### ‘주력인 자동차도 재편 및 구조조정을 통한 경쟁력 강화’

닛산은 경영부진에 빠진 미쓰비시자동차에 34%를 출자한다. 닛산과 미쓰비시자동차의 제휴 동기는 다음과 같다.

① 핵심 개발인력의 교류 확대, ② 신기술자원의 공유를 통해 자동운전이나 커넥티드 카 개발 등 신기술 개발 부담을 상호 경감, ③ 경자동차 분야에서의 협력을 확대, ④ 동남아시아에서의 협력 강화를 추구, ⑤ 환경대응차 개발에 대한 협력이 필요, ⑥ 생산거점을 공유, ⑦ 플랫폼이나 부품의 공통화를 통해 개발·조달 비용을 경감하고 규모의 경제 이점을 추구하기 위해서이다.

한편 2년 연속 2조엔 이상의 순이익을 실현하고 있는 도요타는 급격한 환경변화에 위기의식을 갖고 향후 에너지문제, 환경문제, 자동운전 등의 해결에 주력할 방침이다. 도요타는 TNGA(도요타 뉴 글로벌 아키텍처)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TNGA는 부품의 공통화 외에 복수 차종의 전사적 최적시스템을 구축하면서도 개별 차종의 차별화/고급화를 동시에 추구하는 전략이다. 특히 자동운전 기술과 관련하여 AI(인공지능) 분야에 향후 5년간 10억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다. 2016년 1월 미국 실리콘밸리에 AI 관련 연구소를 설립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 ‘샤프 대만회사에 인수, 르네사스도 관제 구조조정 추진’

샤프는 2015년 4-12월 결산에서 1,083억엔의 당기손실을 기록한 후 대만기업인 홍하이에 인수되었다. 세계적인 액정 시장의 불황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액정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은 샤프가 이를 견뎌낼 수 있을지, 홍하이가 샤프를 얼마나 뒷받침해 줄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이번 결정에 대하여 일본 내에서는 주무 기관인 산업혁신기구와 감독 관청인 경산성에 대한 비판도 나오고 있다.

### ‘도시바, 히다치는 핵심사업에 집중하는 선택과 집중 전략 추구’

도시바는 원전과 반도체가 부진을 보이고 있다. 동사는 백색가전, PC, 의료기기 사업분야를 매각하는 등 대규모 구조조정을 통해 2016년도에는 종래의 백화점식 종합전기(電機) 메이커에서 탈피하고자 한다. 향후 도시바는 주력인 에너지, 반도체, 사회인프라의 3개 부문을 각각 에너지시스템솔루션社, 스토리지&디바이스솔루션社, 인프라시스템솔루션社로, 또한 이들을 지원할 인터스트리얼 ICT솔루션社 등 4개 컴퍼니체제로 재편할 방침이다. 냉장고 등 백색가전은 보유주식 대부분을 중국기업(미데아)에 매각할 방침이다. PC사업 분야에서는 이미 소니에 CMOS센서를 매각한 바 있으며, 채산이 맞지 않는 분야를 타사와의 경영통합 등을 통해서 과감히 정리할 예정이다. 의료사업을 담당하는 도시바메디컬시스템즈를 캐논에 6,655억엔에 매각함으로써 동사의 자기자본비율을 15%로 높일 계획이다. 2017년 3월말 그룹의 종업원 수를 18만 3,000명으로 2015년 동월에 비해 3만 4,000명 감축할 계획이다. 또한 영업이익률이 5%에 미달하는 사업은 철수하거나 재편하는 등 수익률 제고를 위한 구조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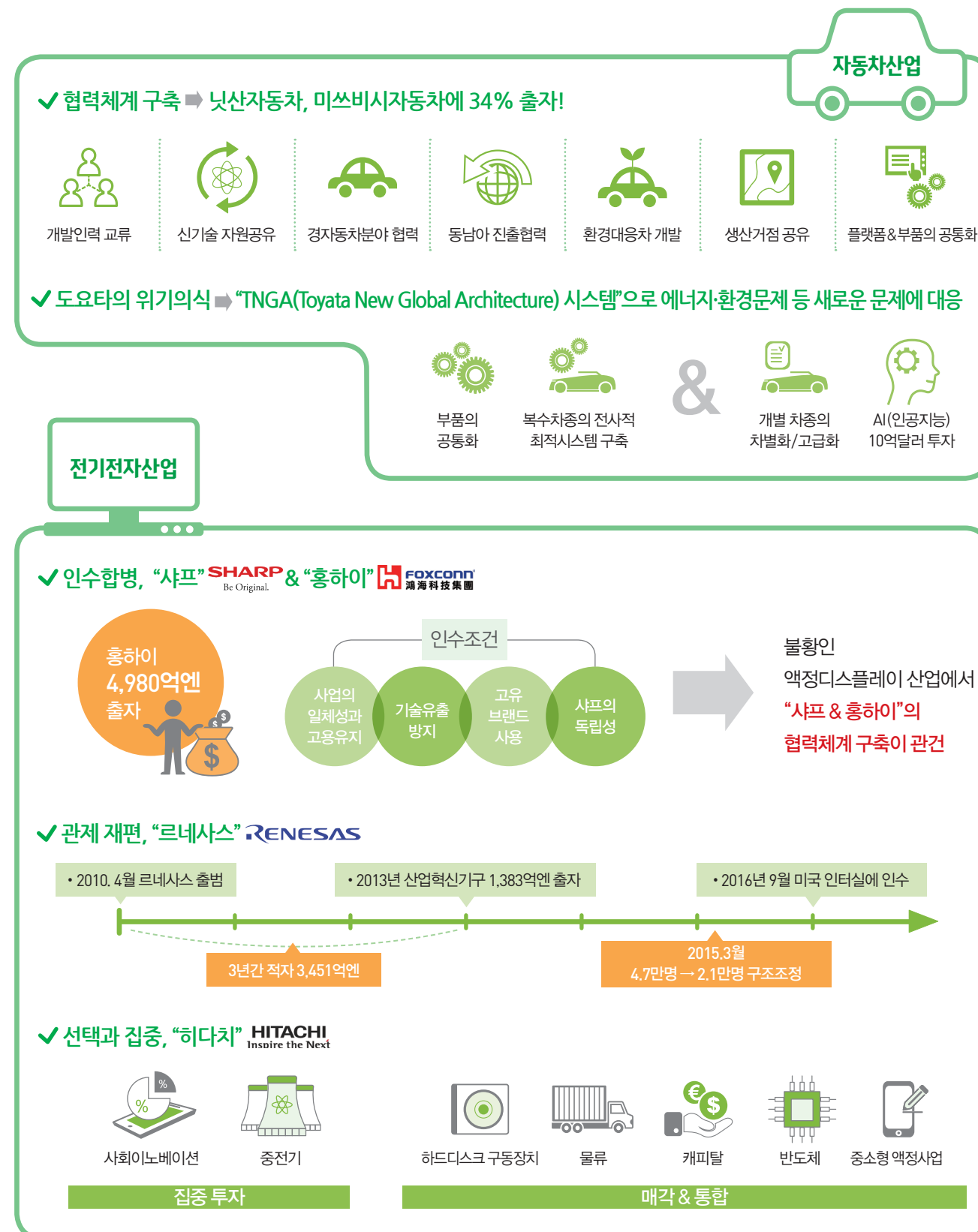
히다치는 성장률 감소를 탈피하기 위해 저수익사업 분야에서의 철수뿐만 아니라 비핵심사업의 정리를 통해 핵심사업에 대한 투자를 집중할 예정이다. 히다치물류가 SG홀딩스에, 히다치캐피탈이 三菱UFJ파이낸셜 그룹에 보유 주식의 대부분을 매각한 것은 비핵심 사업분야의 정리 차원에서였다. 히다치의 CEO는 비핵심 부분의 정리로 인한 매출감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도 구조개혁을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동사는 핵심사업 강화를 위해 M&A를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 본고는 산업연구원의 월간산업경제(2016년 중) 해외산업이슈 코너에 필자가 게재한 것들을 본고에 맞도록 재구성하여 정리한 것임.

저자 \_ 산업연구원 사공 목



## 일본 자동차 & 전기전자산업의 구조조정, 어떻게 진행되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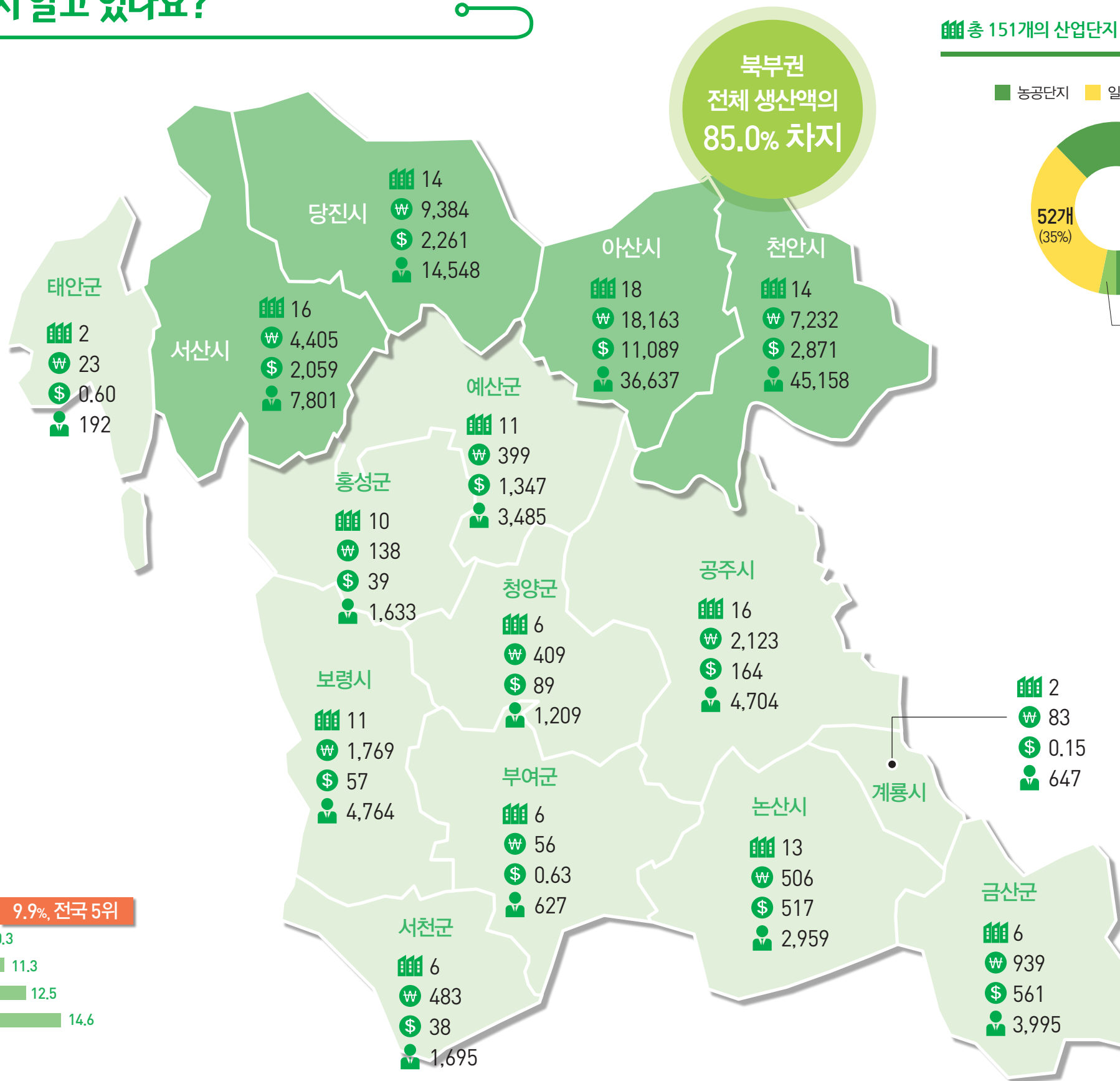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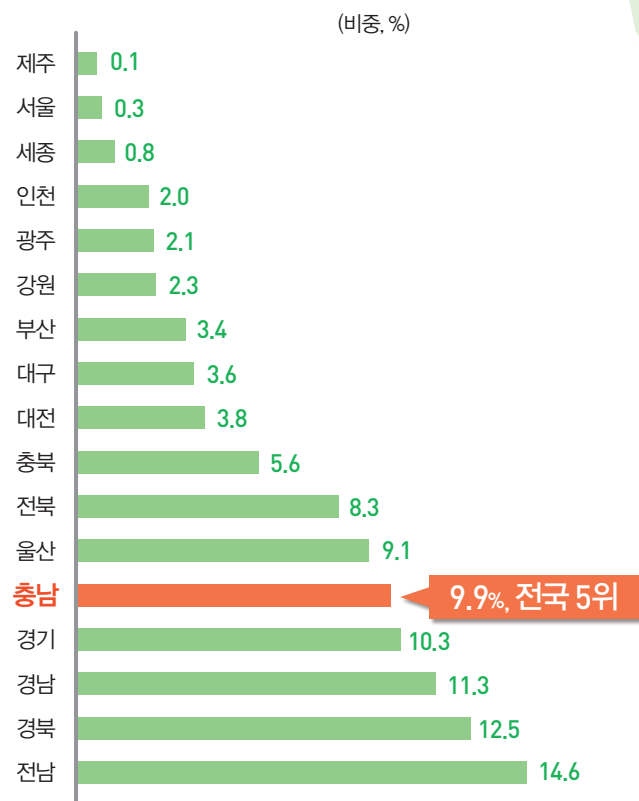


# 충남지역 산업단지 일반현황과 시군별 분포! 어디까지 알고 있나요?

## 범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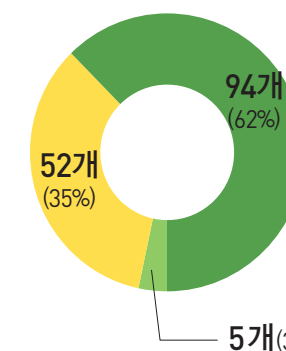
- 산업단지수(개)
- 생산액(십억원)
- 수출액(백만불)
- 고용(명)

산업용지 65,556천m<sup>2</sup>,  
전국 5번째로 많은 면적을 소유



총 151개의 산업단지 중 108개는 조성완료 43개는 조성 중으로 현재진행 중

농공단지 일반산업단지 국가산업단지



108개 43개

충남지역 산업단지 전체 생산액과 수출액은?

₩ 46,111 십억원  
\$ 21,093 백만불

총 고용인원은? 약 13만명

97천명  
33천명

※ 자료 : 충남넷, 산업단지분기별 통계(2016.2분기 기준), 산업입지 정보시스템(2016년 6월 기준)